

가톨릭신문

●구독·광고 문의 (323)735-0505

■POSTMASTER
The Catholic Times :
1502 Crenshaw Blvd., LA, CA 90019

The Catholic Times
infousa@catimes.kr

HAN'S (한스)
Appliance & Furniture
냉장고 세탁기 TV... 전가제품 일체
☎ 323-732-7131
1200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 한 후란시스

제3150호
연중 제14주일 2019년 7월 7일

세계 평화 발판될 만남, ‘끊임없는 대화’로 가능했다

남북미 세 정상 회담… 교황·주교회의 의장 등 환영 입장

전격적으로 성사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교회와 프란치스코 교황도 환영과 격려 입장을 내놴다. 북미 두 정상은 6월 30일 오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1시간 가까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같은 날 메시지를 내고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오늘의 만남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한 평화 정착 구상에 있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역사적이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항구한 평화를 바라는 한민족의 발걸음과 국제사회의 협력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더라도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오늘처럼 자주 만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면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날이 우리

판문점에서 전격 북미 회담 문 대통령 만나 3자 대화도 교황 “평화의 길 진전” 평가 북미간 신뢰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중재자 역할 재확인

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교황도 6월 30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례한 정오 삼종기도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화의 모범을 보았

다”며 “대화의 주인공들이 한반도와 전 세계가 걸어 갈 평화의 길에 진전을 가져온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환영했다.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미 3국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은 남북미 3국이 협력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사상 최초로 미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를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

어 북한 영토를 밟았다. 다시 남측으로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독회담을 시작하기 전 자유의집 앞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3자 간에 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한반도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과거의 연속이었다.

북한과 미국 정상이 서로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백장현(대건 안드레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하이라이트라고 할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환담하는 장면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에서 수행

할 중재자 역할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미국이 북한을 대화 상대자로 보다 중시하게 되면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패싱)될 것이란 일부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미국도 북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 사이를 중재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열쇠인 북한 비핵화는 한국의 중재 없이는 답이 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beatles@catimes.kr

“주님께 받은 사랑, 이웃 향한 사랑으로 이어가자”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평의회 정기피정… 황의현 신부 초빙 강의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평의회(회장 이정화 헬레나, 지도 김창신 아오스딩 신부)가 주관한 정기 피정이 6월 29일 알함브라 소재 Sacred Heart Retreat house에서 13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피정 강의는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영성 지도를 담당하는 황의현 바오로 신부가 초빙되어 맡았다.

황 신부는 “파티마 성모 발현의 주요 메시지는 회생과 기도, 봉헌”이라며 “성모님이 강조하신 묵주기도는 성경에서 그 기본과 근본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모송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와 엘리사벳의 성령이 가득 찬 성모님에 대한 외침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의미를 살려 기도하면 성모송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된다”고 덧붙혔다.

이날 강의는 사도 바오로 축일을 맞이해 그의 기도 방식에 대한 집중적 가르침과 나눔으로 이어지며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사도 바오로의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시간이었다.

황 신부는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오로는 열정적이고 활동적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도였다”며 “마르타의 활동성과 마리아의 정적인 모습을 함께 했으며 이러한



6월 29일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평의회 정기 피정 참가자들이 황의현 신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사도 바오로의 기도 배경은 이스라엘의 다양한 기도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도 바오로의 기도는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로 유일신 하느님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하게 되었으며,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은총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신자들에게도 권고했다”고 설명한 황 신부는 “사도 바오로의 기도는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열정적 중재 기도와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와 찬미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수성심의 핵심은 고통을 겪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

며 “성체는 그분을 누리는 부분이지만 성령은 회생과 고통을 의미하고 장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를 닮은 사람은 선물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다”면서 “그분께 받은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으로 강의를 마쳤다.

바스를 동원해 신자들을 이끌고 온 김금성(말다, 성 바실 본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회장)씨는 “기도 중에 항상 회원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했었다”면서 “사도 바오로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열성을 이번 피정에서 담아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평의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을 맞이해 8월 2일과 3일, 봉헌을 위한 33일간 준비 특강을 성 바실 본당에서 열 예정이다.

특강 강사로는 신동규 다미아노 신부(한국 파티마 본부)가 초청되며, 자세한 문의는 이정화(헬레나) 회장에게 하면 된다. (전화: 323-899-3202)

노 배나시오

알라스카
차가버섯
녹용

연회녹용 대표 함대기 루카
Cell 907-227-0083
www.alaskayh.com

100 % 청정 Alaska 특산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세요

- 차가버섯/상황버섯: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아토피
- 야생 사슴 녹용:
원기회복, 어린이 발육, 면역력 증강
- 가시오가피: 무릎 허리 관절염
- 불로초, 민들레뿌리, 골담초

미국 한국 택배 가능



워싱턴 DC 시내에서 진행된 성체 성혈 대축일 행진(Credit: Deirdre McQuade.)

워싱턴 DC 성체 성혈 대축일 행진

6월 23일 주일 ‘거룩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약 350명이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펼쳤다.

워싱턴 DC의 홀리 컴퍼터와 세인트 사이프리안 처치의 찰스 포프 몬시뇰에 의해 주도된 행렬은 약 1.5마일 정도를 걸어 캐피톨 힐의 세인트 조셉 처치에서 멈췄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성체는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건물을 지나고 참가한 사람들은 성가를 부르고 묵주기도를 드렸다.

캐피톨 힐에서의 올해 첫 번째 성체 행렬은 가톨릭 남성연합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포프 몬시뇰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다.

포프 몬시뇰은 대교구 웹사이트에 국회의사당을 “존경심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장소이며, 그

곳은 우리나라 권력의 진원지이며 선과 악의 힘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많은 시민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지나쳤다”라고 표현했다.

시민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응시했고 어떤 혼란이나 시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포프 몬시뇰은 이 행렬이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죄와 부족한 부분을 보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프 몬시뇰은 “우리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결점을 극복하며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감구하며 주님께 새롭게 헌신할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국민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가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주님은 긍휼과 구원의 총만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했다.

Washington D.C. / CNA

2019 북미주 성령대회

24차 미동북부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태 9장 29절)

성령대회에 형제 자매님을 초대합니다.

Ivo Pavic (이보 파비치 신부)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반아루카 관구
•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사제로 각국에서 치유기도와 피정지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체적으로 회개와 치유를 경험하고 있음
•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 대학원 영성신학박사
• 저서: 『Zedan』 기도를 통한 건강실리기, 『주님께 응답하기』
통역: 남마르타/바티칸 ICCRS 통역사

전홍식 요아킴 신부
• 북미주 성령봉사회 부회장
• 남가주 성령연합 봉사회 지도신부
• 성 클레멘스 주임신부

백운택 아오스딩 신부
• 북미주 성령봉사회 회장
• 북미주 레지오 마리아 지도신부
• 미동북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 RVC 지도신부
• 락클랜드 주임신부

정건석 프랜시스 신부
• 북미주 성령봉사회 부회장
• 중남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 중남부 사제협의회 회장
• 오스틴 한인성당 주임신부

●참가비: \$40(토요일-점심, 저녁 / 주일-점심 식사 포함)
모든 참가자분들께 성령대회 강의 녹음 USB 1개 증정

●신청마감일: 2019년 7월 14일(주일)

●등록: 미동북부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CRSC-NE)
120 W. Palisades Blvd. 2nd Fl.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7-4717 / Fax. 201-947-4718
E-mail: crsne92@gmail.com

●등록방법: 각 본당 성령 기도회를 통한 단체 등록을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봉사회 사무실로 개인등록 가능)

●숙박●
호텔: Hilton Hasbrouck Heights (Tel. 201-288-6100, 1-800-445-8667)
주소: 650 Terrace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숙박비: \$112.00 + Tax(1박 4인 1실 기준 - 1인 \$32.10 / 6월 18일까지 예약하실 경우 보장)
예약방법: 개별예약 - 룸메이트를 정하셔서 기한 내에 예약하십시오.
예약하실 때 그룹이름을 “CRSCNE”라고 하십시오.

주최 ★ 주관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CRSC-NE 지도신부 백운택 아오스딩, 회장 소귀경 로즈메리)

자세한 문의는 봉사회 사무실로 하십시오.(201-947-4717)

후원 ★ **미동북부 사제 협의회**
각 본당 기도회

성모님 닮은 겸손한 삶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남가주 성 바실 본당, ‘행복한 레지오’ 주제로 레지오 마리에 전 단원 특강

남가주 성 바실 한인본당(주임 김창신 아오스딩 신부)이 멕시코 캄페체 교구 콘코르디아 본당 주임 최강 신부(스테파노-한국외방선교회)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행복한 레지오’를 주제, ‘레지오의 목적(교본 제 2장) 성화와 선교’를 부제로 레지오 마리에 전 단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 신부는 “제가 사는 곳은 이곳보다 더 덥고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섭씨 42도 정도의 기온이 문제가 아니라 습도가 90%나 된다”며 “그래도 10년을 살다 보니 그런대로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조건은 맞춰서 살면 된다”면서 “가난, 폭력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려면 열정보다 그곳의 삶에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선교지 소개로 강의를 시작했다.

최 신부는 이번 특강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레지오 마리에의 설립 목적 키워드는 단원들의 성화와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의의 부제는 ‘성화와 선교’라면서 “선교는 성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세와 열기나무를 예로 든 최 신부는 “하느님 앞에서 조차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감추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어려운 결음이며 조금이라도 바르게 걷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육신이 우리의 진정한 삶과 신앙생활, 기도를 모두 가리고 있으며, 일곱 가지 죄의 근원은 모두 육신에서 비롯된다”며 있는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닌 없음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 신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성 바실 본당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

최 신부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이 대체적으로 장년층인 점을 상기시키며 “나이가 들면 뒷걸음질 쳐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탈이 나는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신부는 “레지오 마리에의 자신의 성화를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레지오 단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법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은 나의 겸손에서 시작되며, 겸손은 하느님께만이 아니라 내게도 영광을 주는 것”이라며 “겸손을 지키지 못하면 삶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의 조건을 달아 놓고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바꿔야 하며, 레지오 단원의 정체성은 자기 내부로부터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우리는 진실하고, 선하며,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최 신부는 “행복이 채움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최 신부는 “우리에게는 오늘이, 지금이 중요하며,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면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버스에 타 있는 여행자로 볼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아닌 지금의 나”라고 자신의 현재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버지를 부르며 아침을 열고, 낮에는 작더라도 선을 행하며, 밤에는 하루에 감사하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인식하는 자세를 가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신부는 “교회는 올라왔다고 구원을 받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며, 구원 받

기 위해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인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신자나 단원이 되지 말자”며 신앙인으로의 삶에 대한 자세 또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신부는 “사람으로, 또는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하늘만 보며 기도만 하고 뜻을 기다리는 것은 나태한 삶이며, 사람으로, 신자로서 지킬 것을 조금 지켰다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교만함”이라면서 “나태함과 교만함을 경계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레지오 단원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하며 강의를 마쳤다.

강의 후 최 신부는 레지오 단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로사



샬리 트리몬트 수녀가 칼라스 대 스칼라스 경기 중 스윙을 하고 있다.(CNS photo/Steven Aiello, The Tablet)

성직자팀 칼라스 vs 학교 교사팀 스칼라스 가톨릭 교육의 밤 축하 일한 소프트볼 경기

브루클린 성직자들이 팀을 이룬 칼라스는 2년 연속 소프트볼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교구 학교 교사들의 팀인 스칼라스를 2대 1로 제압했다.

매년 개최되는 칼라스 대 스칼라스 경기는 6월 17일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세션의 MCU Park 야구 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이곳은 뉴욕 매츠와 제휴한 브루클린 사이클론스의 홈구장이다.

퀸즈 빌리지 본당 크리스토퍼 베스지 신부는 “이 경기는 가톨릭 교육 축하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내년에는 3대 0으로 나아가길 칼라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엠허스트의 애덜버트 가톨릭 아카데미의 교장 톰 모리스도 “브루클린 사이클론스가 경기를 하는 곳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좋은 경험이었다”며 “우리는 내년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브루클린의 교구신문인 ‘더 타블렛’의 모회사인 드살 미디어는 가톨릭 교육의 밤 축하의 일환으로 이 경기를 후원했다.

스칼라스는 마린 파크의 굿 셰퍼드 가톨릭 아카데미의 교장 존 오브라이언의 내야쪽 홈런으로 초반 경기를 리드했다. 그러나 3이닝에서 성직자들의 타선이 살아났다.

베테랑 사제들 중 일부가 참가하지 못한 칼라스는 신학생 및 젊은 사제들로 라인업을 강화했고 그 차이가 입증됐다.

리치몬드 힐 힐리웃 차일드 지저스 본당의 크리스 하뉴 신부, 벤슨 허스트 세인트 아타나시우스 본당의 에드윈 오티즈 신부, 신학생 엘빈 토레스와 파올라 살라즈가 타격과 수비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스칼라스는 4회에 위험을 가했다.

MCA 관계자들이 사제와 신학생들의 승리를 점치고 있을 때 벨 하보의 세인트 프란시스 데 살레스 가톨릭 아카데미의 교장인 크리스토퍼 스카바흐는 1루에 있었고 오브라이언 교장이 적시타를 날렸다.

저녁에는 작년 MVP 트리몬트 수녀를 기념하기 위한 경품행사가 있었다. 릴리저스 티처스 필리피니의 샬리 트리몬트 수녀는 2루에서 몇 차례의 화려한 수비를 선보였다. 게임 전, 드살 미디어와 브루클린 교구 교육부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 초등학교들의 졸업생 대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브라이언 교장은 “스칼라스 대 칼라스 소프트볼 경기는 학기를 종강하는 멋진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브라이언 교장은 “더 타블렛”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는 재미있었고 좋은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내년에 재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이리지 아우어 레이디 오브 엔젤스 본당의 제이슨 에스피날 신부는 “우리는 가톨릭 교육이 개인의 전체 형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이 게임은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것을 축하하고 있으며, 공동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건전한 경쟁으로 즐겁게 경기를 펼쳤다”며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 성직자들과 신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BROOKLYN, N.Y. (CNS)

“성당서 열린 포장마차, 고국의 추억 나눴어요”



미주 가톨릭신문
THE CATHOLIC TIMES, INC.

Publisher : Fr. JiJong Yoon
발행인 윤지중 미카엘 신부

15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5-0505 FAX. (323)735-2496

www.catholictimes.org
E-mail: infousa@catimes.kr

The Catholic Times (USPS 003-558) is published weekly(except Korean Lunar Calendar New Year of Feb., Summer Vacation of Aug., Korean Thanksgiving Day of Sep.) for \$130 by The Catholic Times Inc., 15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Periodicals Postage at Los Angeles, CA, and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The Catholic Times, 15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미주 가톨릭신문(USPS 003-558)은 매 주일 발간하는 주간지로서 1년에 3회(설날, 여름 휴가, 추석) 휴간합니다.

구독료 (1년) 미국 : USD \$130
캐나다 : CAD \$300

뉴저지 이튼타운 한인본당
본당 기금 마련 위해



뉴저지 소재 이튼타운 한인본당(주임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이 본당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포장마차를 열었다. 본당 친교실에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포장마차는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시라’(잠언 9장 5절)라는 말씀을 주제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당 신자들뿐 아니라 성당 인근 주민들도 함께 했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오랜만에 과거 고국에서 가졌던 포장마차의 추억과 향수에 젖어 음료와 식사를 즐기며 노래를 함께 하는 정겨움을 연출했다. 이번 행사는 본당 소속 40~50대 중반 남성 친목단체인 풀회가 주최했고, 본당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많은 신자들이 같이한 즐거운 화합의 자리였다.

김동민(돈까말로)

책임감 있는 경비
B & B 경비회사

- 24시간 순찰 및 경비
- 최고의 다인종 경비회사 / 최고 수준의 경비원 배치
- 쇼핑센터, 은행, 아파트, 오피스, 빌딩, 식당, 마켓, 병원, 공사현장, 파킹장, 건물 내외부 경비
- 200만불의 최고 보험회사 상해보험

Calif. Lic. PPO 17938

B & B SECURITY, INC.
샌디 김(송복천 스테파노)

3242 W. 8th St. #109., Los Angeles, CA 90005
Office ☎ 213.437.0000 Fax ☎ 888.580.5644
Cell ☎ 213.880.2166 Email ☎ 2002bnb@gmail.com

대한장의사
Dae Han Mortuary(FD 2028)

한인 유일 종합 장의사 / 장례. 화장. 납골당 직접운영



24시간 전화
마당국수 이 미카엘
213-700-1788

Tel 323-731-4040
Fax 213-747-9434
751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5

말씀묵상

위협과 두려움, 그러나 평화

연중 제14주일

제1독서 (이사 66,10-14C) 제2독서 (갈라 6,14-18) 복음 (루카 10,1-12,17-20)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트 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임시 경쟁에 지쳐있던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소 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던 때, 총원에 들어와 책임을 맡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 책을 만난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언제나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이었습니 다.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성경은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전쟁과 싸움은 무언가를 획득하고 소유하기 위해 발생하는데, 이미 충분히 흡족한 상태에 있어서 더 무엇을 소유할 필요도 꼭 이 기려는 마음도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중 제14주일의 본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평화’를 언급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문은 선교와 사목의 궁극적 목적 이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 고, 제1독서에서는 버려져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에 평화와 강물처럼 흘러드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으며, 제2독서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결과가 평화와 자비 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맥락

지난 3주간의 복음들은 마치 3부작 시리즈를 보는 것 처 럼 연결되어 있는데, 연중 12주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지가 소개되었다면 13주일에는 그 소개된 분을 따르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제14주인 이번 주일에는 이 부르심의 목 적적 ‘과전’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만 오늘 복음의 특이 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12사도의 과전이 아니라 72제자의 과전을 묘사한다는 점인데(루카복음서에만 등장) 이는 본 문이 집필될 당시 이민국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던 시 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루카복음서는 이미 9장에 12사도의 과전을 서술한 적이 있고,(9,1-6) 이 어서 10장에 72제자의 과전을 배치합니다.(10,1-12) 12사도 의 과전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면 72제자의 과전은 전 세계를 향한 것이고 이는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의지를 강조하려는 루카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보내심

선교의 대상: 제자들의 과전은 “모든 고을과 고장”(루카 10,1)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매우 큰 시사점을 전해줍니 다. 중세와 근대 그리스도교가 선교에 대하여 가졌던 인식 은, 주로 사제와 수도자들을 먼 곳으로 보내어 그곳 사람들 을 개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 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다 본 질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선교의 대상은 멀리 있는 변방의 국가들이 아니라 도시와 가까운 마을, 내 주변의 사람들임 을 인식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바 있는 프랑스 교회는 선교를 명분으로 자 행되었던 과거의 식민지 정책에서 돌아선다는 의미로, 프 랑스야말로 우선적으로 선교되어야 할 땅임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복음화와 사목, 선교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구 체적인 대상은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인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 다음으로 본문은 진정한 사목과 선교가



자메 티소트의 '그리스도께서 일흔두 명 제자를 두명씩 보내심'.

적용해야 할 방법을 '수확'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키우고 보 호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72제자는 그저 열매를 거두 어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교가 인간의 전략이나 치밀한 실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임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확'을 위해 명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도주머니 도 여행 보파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3-4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 보호와 생 존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가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여유조차 없이 집중하 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에 집중하 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 물이므로, 인사하는 일조차도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 실 '사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는 '과전된 자' 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도직은 '과전하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도직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계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일을 지상에 서 구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적 성실 과 열성으로 최선을 다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열성에만 의지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일이지' 사도직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내용: 전해야 할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느 님의 나라가 가까이”(9절) 왔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 하느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집에 평화 를 빙니다”(6절)라고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이 인사는 ‘살렘’이 라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인사이며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화는, 정치적 협상과 교 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쟁 중지와는 구별됩니다.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총만하고 흡족 해서, 아무리 주변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판자를 걸어 억울 함과 불안 분노를 유발시킨다하더라도 도무지 싸울 의지나 마음이 안 생기는 평정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

복음화와 선교의 결과를 제1독서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선언으로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는 이 들”(이사 66,10)에게 이제 구원된 기쁨의 상황이 ‘말’과 ‘모 성’에 대한 은유로 선언되는데 “평화를 강물처럼, 평화를

넘쳐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인다는 표현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위로를 받으리라”(12-14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과 ‘어머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 한 존재들입니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에 이제 생명과 삶 의 필수적 요소들이 공급됨으로써 평화와 구원의 도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평화

제2독서는 바오로의 선교 전략을 소개합니다. “나는 십 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하 지 않으려고 합니다.”(갈라 6,14) 구원과 은총은 매일의 십 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역설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교 회의 사목과 선교는 “세로운 창조물”로 사는 것임을 선언 합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한 따름입니다.”(15절) 할례는 하느님의 백성이 됨을 상징하는 전례적 행위였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분 짓고 남성을 여성과 구분 짓는 표식이었으나 이제 ‘새 창조’를 통해 하느님 백성이 됨 은 더 이상 할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 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의해 이루 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평 화와 자비가 내려기를 빕니다”(16절)라고 인사합니다. 새 창조의 열매는 하느님의 평화와 자비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누구도 내편이 아니고 그 어느 것도 도움 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히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습 니다. 자신의 양심과 신념, 지켜내야 할 존엄과 열정, 용기 와 지혜 같은 것들입니다. 도주머니나 보파리, 신발도 없이 맨몸으로 낯선 땅을 통과해 가야하지만 그 위협과 두려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온전한 동행에 집중할 때 우 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 화야말로 세상과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궁극적이며 강력 한 힘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 게 하는 진정한 평화를 사는 것,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복음화의 모 습입니다.



김혜운 수녀 (미라내섬모성심수녀회 총원장)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딱 그만큼만

신부님! 우리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엊집 율이네 아빠는 맨날 같이 놀아주고
똥집 희영이 아빠는 맨날 선물 사주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회사 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일해요.

요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가 딱 그만큼만 아빠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의 아빠랑 비교할 만큼,
딱 그만큼만.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루카 10,7)

임의준 신부 서울대학교구직장사목팀

QR로 듣는 교황님 말씀



하느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을 내리시길!



사런 속에서도 그분께 믿음을 두며 그분의 용서 를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갖 게 되길 빕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노트르담대성 당 하제로 실의에 빠져 있는 파리대교구 공동체와 모든 프랑스인들에게 저의 각별한 애정과 친밀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슬픔으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으 로 여러분 모두와 가까이 있다고 느낍니다. 개인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성당을 지키기 위해 애쓰 신 수많은 소망대원분들께 전체 교회의 감사 인사 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17일 일문열현 후 공식사형 중

출처: 진술가 신부 페이시북

*QR코드는 스마트폰 QR코드 관련 앱이나 포털사이트의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27 창간 92주년

'신앙의 길잡이'

가톨릭신문은 냉담교우와 비신자들에게 좋은 선교지가 되고, 중남미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가톨릭신문'을 보내주세요.

“하늘과 땅이 한가운데
가톨릭신문”

구독 · 광고 문의

전화 : 323-735-0505

팩스 : 323-735-2496

infousa@catimes.kr

우주관광

성지순례일정

출발가능 인원 15명 이상

신청서 접수 날짜에 따라 항공요금 변동으로 다소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도보순례) 파티마 13일

기간 2019년 9월 1일 ~ 9월 13일

순례지 바르셀로나 - 몬세랴트 - 하비에르 - 레온 -
도보순례 - 피스테라 - 목시아 - 산티아고 - 파티마

동유럽 13일

독일 · 오스트리아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헝가리 · 폴란드 · 체코

기간 2019년 9월 16일 ~ 9월 28일

그리스 · 터키 13일

기간 2019년 9월 30일 ~ 10월 12일

이집트(시나이) ·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12일기간 2019년 10월 29일 ~ 11월 9일
2020년 2월 18일 ~ 2월 29일발칸(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반도와 메주고리 11일

기간 2019년 11월 10일 ~ 11월 20일

스페인 일주 성지순례 13일

기간 2020년 4월 13일 ~ 4월 25일

순례지 발렌시아 - 파티마 - 산티아고 - 바르셀로나 -
마드리드 - 아빌라 - 그라나다 등 등

2020 예수님 수난극 (Passion Play - 오버함머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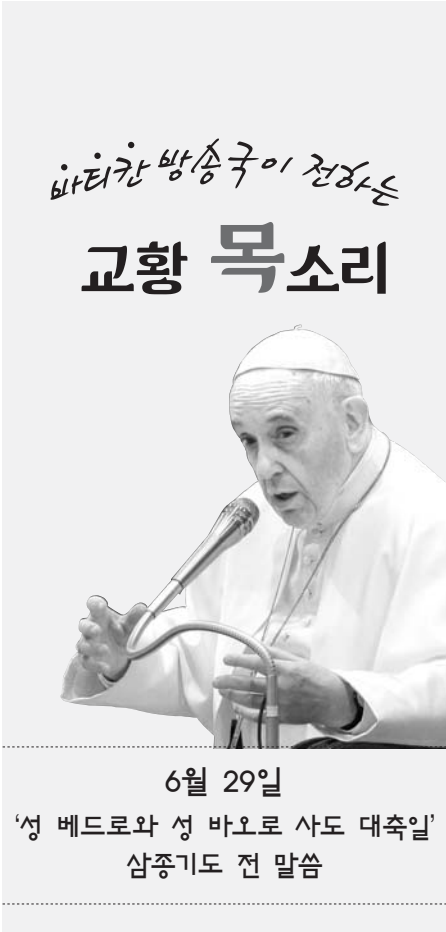
매 10년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예수님수난극 참관을 예정입니다.
수난극을 포함한 10일간의 성지순례 일정으로 진행되며 출발날자는
신청자감이 된 후에 입장권 가능한 날짜에 따라 정해지며
2020년 5월과 7월 그리고 9월을 예정입니다. 마감인원은 20명/1회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표와 신청서 양식을
요청 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우주관광

◆ 주소 : P.O BOX 2674 SUWANEE, GA 30024 ◆ 담 당 : 김내순 요한 ◆ 전화 : 678-765-0022 ◆ 휴대전화 : 407-212-2923 ◆ 이메일 : woojoo9696@gmail.com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명사로 보기보다 ‘나’의라는 소 유격의 형용사로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곧,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 실체를 갖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기르는 큰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에페 5.25)

다시 말해, 사도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처럼 사랑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단지) 믿는 이들의 단체나 종교적인 기구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따뜻한 애정으로 당신 교회를 바라보시고, 절대적인 충실성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날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너희는 내 교회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배타적인 소속감으로 (‘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지내는 아름다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치와 개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의 자아에, 나의 욕망

에 부응하기 때문에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애정을 거기에 쏟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내가 돌보기 때문에, 이콘 속에 있는 사도들처럼, 나 또한 교회를 떠받쳐주기 때문에 ‘내’ 교회입니다.

어떻게요? 형제적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형제적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콘에서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가 서로 팔을 겨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 성격, 행동방식과 감수성이 서로 다른 어부와 바리사이입니다. 그들 사이에 대립되는 견해와 거리낌 없는 논쟁은 적지 않았습니

다. 서로 많이 다른 두 사도를 일치시키는 이 축일에, 우리 각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바로 형제애입니다. 악의나 질투 없이, 타인의 자질을 존중하고 타인의 재능을 인정

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질투! 질투는 마음속에 괴로움을 유발합니다. 마음에 식초를 뿌린 격입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을까? 카페라떼를 마셨을까? 아니면 식초를 마셨을까?”

왜냐하면 질투는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있음을 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

까! 우리는 같은 신앙, 같은 사랑, 같은 희망, 같은 주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7) 우리에게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똑같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크신 사랑으로, 크신 파산한 애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람들로 느끼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건설하는 사랑입니다.

사도들의 전구를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볼 줄 아는 시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드러운 사랑으로 타인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청합시다. 아울러 우리처럼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힘, 기도하고 사랑하는 힘을 청합시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는 혹시라도 뒷담화와는 다릅니다. 절대 험담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들 사이에 일치를 가져다 주셨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마리아에게서(사도 1.14 참조),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처럼 우리를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공 바티칸 방송국 kr.radiovaticana.va

미주교구 소식

더 나은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지원하는 ‘신성한 양식 연구소’

제프리 로릭 신부는 자신의 소명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울했고 성격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으며 영혼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사목을 놓게 되었다. 그는 본당 사목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로릭 신부는 사우스다코타 주의 양크론 근처 불롬트리 피정센터에서 수필스 교구의 집 메이슨 신부를 만났다.

세인트루이스의 캔릭-그레넨 신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메이슨 신부는 로릭 신부에게 주님 앞에서 신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도록 영적 분별력과 기도의 원칙을 가르쳤다. 로릭 신부는 평화를 얻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메이슨 신부는 ‘신성한 양식 연구소’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배웠다. 지난 25년 동안 연구소의 영성 프로그램은 미 전역 수천 명의 사제와 신학생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그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오마하의 크레이튼 대학에 위치한 연구소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당신의 희망에 대한 이유’라는 주제로 축하 주말을 열 예정이다.

“연구소의 조점은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정신적 삶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있는 방식으로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이며 책임자인 리처드 개버즈다 신부는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느님께서



제임스 레퍼티 신부가 2019년 6월 11일 크레튼 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CNS photo/Mike May, Catholic Voice

그들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제의 마음이 하느님께 더욱 집중되어 있을 때 하느님을 위한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얻게 된다.”

로릭 신부는 오마하 대교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것은 내 마음에 감동적 움직임이었다”면서 “전과 약, 추악한 것과 희망, 욕망,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세인트 이나시우스 로올라의 영성학회에서 배운 정신의 분별력에 익숙해진 로릭 신부는 2011년부터 매년 3주간, 3년의 영적 방향 형성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는 현재 여름 세미나 프로그

램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로릭 신부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사제가 하느님을 알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6명의 신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신성한 양식 연구소’는 매년 성장을 거듭했다고 선교 및 대외협력 담당이사인 제임스 레퍼티 신부는 전했다.

올 여름, 60개 이상의 교구에서 177명의 신학생들과 60여 명의 사제들이 9주 동안의 영성 프로그램을 위해 크레이튼 캠퍼스에 모일 예정이다.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튼 교구 신부였고 2003년부터 연구소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레퍼티 신부는 2013년 전임이 되었고, 2017

년 오마하 대교구 소속 성직자가 되었다.

2017년에 사제품을 받은 스캇 설 모렐라 신부는 “이런 형태로 형제 사제들과 동행하고 그들의 신앙함을 증거하는 것은 큰 특권”이라며 “하느님의 관대함과 그 소통 방법을 보면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며 그가 배운 내용은 유혹 또는 산만함과 주님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의 이해와 같이 자신의 사목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네브래스카 주 노퍽의 세인트 레오나드 본당의 보좌인 철모엘로 신부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내게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들고 계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신학생 및 영성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주교, 신학생, 평신도를 위한 포럼 및 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개버즈다 신부는 연구소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계획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버즈다 신부는 “우리의 사명은 효과적이야 밝혀졌고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가을쯤에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OMAHA, Neb.(CNS)

미주 한인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여정** (119)

왜 이리 떠남이 힘겨운지...

주님 은총과 자비에 힘입어 이 세상에 온 존재라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지배받게 되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든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 자비의 품에서 시작된 우리의 생명은 결코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세상 소풍을 만끽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겪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그분 품으로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준엄한 대자연의 이치지만, 막상 떠나야 할 그 순간이 오면 그 누구든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그리도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나만은 절대로 못가겠다'고 버틸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만 합니다.

병자성사를 드려다보면 유달리 이승과의 작별이 힘겨운 분들을 만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대체로 지니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물이면 재물, 권세면 권세, 학벌이면 학벌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평평거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만도 한 것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재물의 탐, 수백 억, 수천 억, 두고 떠나려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남들 다 잘 때 수면시간 줄여가며 공부벌레처럼 산 결과 획득한 전문성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으니,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 저희 같은 수도자, 사제들 사이에서도 그 '떠남'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성이면 영성, 상담심리면 상담심리,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쪽, 자기만의 특화된 분야에 오랜 세월 쌓아올린 전문성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기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회는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데, 그에 따라 수도자들도 한 분야에 전문가, 대가(大家)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야 도움이 필요한 양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사목적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쌓아올린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한 평범한 수도자로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습니까? 오랜 세월 맺어온 소중한 인맥도,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대상자들도, 후원자들과 봉사자들도 다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입지로 떠나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사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외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봉헌생활자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부차적인 것은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둔주머니도 여형 보파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루카 10.3-4)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 안에서의 지속적인 자기 비움, 지속적인 자기 낮춤,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추는 노력,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마음...

양승국 신부(살레시오회)

하느님, 감사합니다.

4차, 산티아고 프랑스길, 800Km 모두 잘 다녀왔습니다.

가을보다 봄이 100배 아름다워 매년 봄에 갑니다.

인솔:임주빈 59세

이이향 74세

유광섭 71세

고진광 76세

곽스테파노 78세

곽예지나 70세

목은 70세

황규석 57세

김태현 51세

이흥규 59세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결심을 하면 당신의 몸이 변화합니다.

5차, 19년 9월 10일 산티아고 포르투갈 길 641키로 출발(34일)-Lisbon-Porto-Santiago

6차, 2020년 봄, 4월20일 산티아고 프랑스길 800키로 출발(40일)

7차, 20년 9월 1일 산티아고 북쪽길 출발 (42일)-Irun-Bilbao-Santander-Santiago

스페인 산티아고 전문 여행사

매주 수,토요일 산티아고 준비 훈련을 합니다.

엠마오 투어 (Emmaus Tours Inc.) 대표: 임주빈 콜베 **C:213-447-3212.** 4165 W. 5th St., LA, CA 90020 (5가+웨스턴,디지털 사진관안여)
www.EmmausToursInc.com e-joobinlim@gmail.com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는 참 목자 되시길

예수성심의 사랑 안에서 안병 하신지요?

이곳 볼리비아 알토교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주교님이 탄생하였습니다.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이었던 '빠스쿠알' 신부님께서 주교단에 합류하시게 된 것이지요. 가까이에서 주교 작좌식 준비 모습을 보니 거룩한 교회에 새 목자가 탄생하는 역사적이고 감동스럽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주교좌성당에 미리 갔는데도 순식간에 자리가 모두 차고 성당 밖에 마련되어 있는 간이의자에 도 사람들이 모두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볼리비아 모든 주교님들께서 빠스쿠알 새 주교님께 한 분 한 분 장엄축복을 하고 성인호칭기도로 다 함께 기도를 드리고 교구장 주교님은 주교의 상징인 반지와 모자, 목장 수여를 했습니다.

주교 반지는 거룩한 교회의 신부가 되는 약속을 뜻하고 주교 모자는 화상처럼 생긴 모양이 하늘을 가리키며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주교 목장(지팡이)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데 하느님 백성들을



볼리비아 알토교구 빠스쿠알 총대리 신부의 주교 작좌식.

하나로 모으고 지시를 내리며 또한 원수를 물리치고 요류를 바로 잡습니다.

새 주교님께서 지금처럼 늘 하

느님 뜻을 따르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걷는 참 목자로서의 직무를 다하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알토교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하며 최고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김효진 집사 수녀(하느님 섬리의 딸 수녀회)

특별기고

생명수호 - 한 여성의 이야기

그때 캐시 폴란은 수도자가 되려고 식별과정 중에 있던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잃어버린 집 열쇠와 맥주 몇 잔이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다. 현재 40대 후반인 폴란 씨는 1990년, 그 운명적인 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 학생이던 그녀는 대학가 주점에서 있었던 친구들의 모임에 합류했다. Senior의 밤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아 파트 열쇠가 없어진 것을 알고 당황한 그녀에게 친구의 친구가 자기 아 파트를 제공하겠다고 권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성폭행했다. “계획적이었어요.” 그때 일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날 일을 가슴 속 깊이 묻고 지나가고 싶었다. 기도를 통해 위안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녀는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기사에게 설명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 일을 길게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캐시는 언제부터인가 메스꺼움을 자주 느끼게 되었다. 무서운 그날 밤의 기억이 임신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배속에 있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생명운동 후원자이자 가

톨릭신자였던 그녀는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낙태 수술을 염두에 둔 적이 없었다. 임양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폴란 씨는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워싱턴 주 스포커크의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공개적으로 임양을 선언한 그녀는 아이에게 어떤 부모가 필요할 것인지 생각했다.

“임양할 부모를 찾으면서 종교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기를 원했죠. 결국 저는 임양할 부모도 생명존중운동을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가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그녀는 심한 번뇌와 불면의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를 돌던 간호사의 추천으로 그녀는 메릴랜드에 사는 한 가톨릭 신자 부부를 소개받았다. 베리와 리즈 설리번 부부였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아이를 임양하여 키우고 있었다.

폴란은 베리와 리즈가 아이의 이

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도 가톨릭 서점에 들러 이름의 유래에 관한 책을 구입해 읽어봤다. 그중에서도 유달리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었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네이탄(Nathan)이었다. 폴란은 설리번 부부에게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설리번 부부가 그녀에게 제이슨과 네이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좋겠는지 묻자, 깜짝 놀라면서도 스스로임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해산일이 점점 다가왔다. 폴란 씨는 36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해산 후 4일째 되던 날, 설리번 가족과 폴란의 조부모, 가족을 모시고 아이의 영세식이 있었다. 이를 후에 캐시 폴란은 아이와 작별했다.

대학으로 돌아간 후에도 폴란은 그 일을 가슴 깊이 묻어두려 했다. 하지만 아이를 임양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혼자서 자책하고 가슴을 치는 일도 자주 있었다. 고통스러운 10개월이 흘렀다. 설리번 부부는 그녀에게 꼭 메릴랜드로 와보라고 거의 간청하곤 했었다. “그곳에서 아이는 엄마, 아빠, 누나와 함께 정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절대로 줄 수 없는 삶이었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폴란의 철학 교수는 그녀에게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 일을 생명존중운동의 모범으로 삼아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상처 받은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설리번 부부는 그녀에게 아이와 정기적인 만남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편지와 전화를 통해 세 사람은 네이탄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다. 그는 이글 스카우트를 거쳐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폴란도 결혼해 현재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성도미니코 성당의 가정, 청소년 사목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괴로워하던 폴란 씨도 이제는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은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사랑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네이탄은 저희 온 가족에게 큰 축복입니다.”

Joan Frawley Desmond / NC Register senior editor



문영석 종신부제의

신학대상 (26)

생태학과 영성(8)-생태윤리: 자연도 권리가 있을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음식에 관한 논쟁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보신탕, 즉 개고기 문제일 것이다. 개나 고양이를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애지중지하는 서구인들에게 한국의 잔인한 개도살 장면이나 개고기의 근수를 늘리기 위해 물을 먹이고 두드려 패는 혐기적 장면이 TV에 방영되거나 신문기사를 본 백인들은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입에 거품을 뿜다. USA Today 2019년 3월 7일자 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를 먹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쇠창살에 갇힌 개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의 어떤 신문은 한국인은 개고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를 먹는다고 썼다가 교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첨단 전자 제품

집승보다 나를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터끌에서 왔다가 터끌로 돌아가는 것을! (전도서 4,18-20)

위의 구절들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에게 절대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인간의 운명 또한 이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경은 인간이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며 인간 또한 원소유주인 하느님께 매여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께로부터 지구에 대한 일시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뿐이기에 하느님의 대리인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책임성 있는 청지기” 혹은 관리자 직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책임성 있는 청지기”로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작품이신 자

“책임성 있는 청지기”로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작품이신 자연을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돌보아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인간의 지구에 대한 사용권은 일정하게 내에서 허락된 것으로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계가 인간의 오용과 무절제한 남용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

이나 인기를 끄는 한류 음악 등을 통해 선진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 주려고 하지만 이런 기사가 한번 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긴 황당한 편견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것이다.

성경에서는 인간과 동물들의 친밀성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창조의 제6일에 동물과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지(창세 1, 24-31) 인간은 또한 다른 포유류 동물들처럼 공룡적인 더운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피를 제거하기 전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령(레위 7,26; 19,26; 신명 12,15)을 내렸다는지 하는 경우들이다. 이 외에도 구약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인간존재의 나약성과 함께 다른 동물들과의 공동 피조물 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람이란 본디가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 사람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한때 사람이

연을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돌보아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인간의 지구에 대한 사용권은 일정하게 내에서 허락된 것으로 하느님은 자신의 창조계가 인간의 오용과 무절제한 남용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 예를 들면 가족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야 한다는 금령(출애 20,11)이나, 먹지 말아야 할 수많은 동물들의 목록들(신명 14,3-20), 포유동물들의 피는 먹지 말라는 금령들을 인간에게 부과한다. 이러한 제한들은 동물들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구약성경은 홍수, 가뭄 등 자연계의 이변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과 자연계의 모든 것이 신의 권능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청지기로서 그의 직분을 잘 이행하지 못하거나 태만했을 때 하느님은 자연의 재앙을 통해 인간을 심판하신다. 바빌로니아인들이 가뭄과 태풍을 자연계의 혼돈을 지배하는 티아맛의 시원적 힘으로 본대 반하여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의 의지가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고 믿었으며(이사 25) 또한 거친 자연의 표현은 인간의 악행을 징벌하고자하는 하느님의 분노로 이해하였다.

※문영석(시몬) 종신부제는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은 후, 캐나다와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신학과 종교학을 강의했으며, 2016년 정년 퇴임 후 밴쿠버에서 종신부제로서 병원과 본당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성심 피정집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청국장 가루!

생태맘 청국장 가루는
강원도 평창 인근에서 농사지는 콩으로 장작을 때고, 가마솥에 삶고, 황토방에 발효시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청국장 가루는 항암 작용이 탁월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장 건강,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으며, 당뇨/ 뇌졸중 예방, 고혈압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 드시는 방법

- 1일 2~3회 밥숟가락으로 두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 처음 드시는 분들은 꿀물이나 우유,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등에 한 스푼씩 넣으시면 한결 구수한 맛이 납니다.
- 생선찌개나 조림에 넣으시면 비린내를 제거해주고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냅니다.
- 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는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다 끓고 난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황창연 신부와
평창 성 필립보 생태마음이
만들었습니다.

\$50.00 /EA

구매문의

Tel: 213-330-6808
 (jshservant@gmail.com)
 수표로 보내실 때:
 Payable To: JSHRC / Memo: 청국장 가루
 주소: 1451 Dana Street, Los Angeles, CA 90007

* 황창연 신부님의 도움으로 예수성심피정집에서 미 전역에 \$50에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예수성심피정집 건립에 사용됩니다.



강원웅의

차 한잔의 시간 (14)

아직도 고인돌 시대

범이 없던 고인돌 시대에는 '자유'를 만끽했는지도 모릅니다. 빨간 신호등에 멈춰야 하는 제약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의무나 책임 또는 제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 산다면 빨간 신호등이든 초록 신호등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자유로워 보이고 심지어 낭만적인 삶일 것 같은데 인간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힌센 자가 약한 자를 자유롭게 지배하고 심지어는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가족이란 집단이 형성되면 타 가족 간의 갈등도 당연히 생겨 힌센 자가 가족의 일부를 빼앗을 수도 있고 전부를 빼앗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집단이 커지고 문명이 축적되면서 좀 더 안정된 삶과 집단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이고 이런 폭력의 '자유'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힌센 자의 자유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답으로 등장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없고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게 하는 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법이 없다면 재산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 호화로운 환경과 삶을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녀나 남편, 아내를 유혹하여 빼앗아도 어쩔 수 없고 어쩌면 당연하다고까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나 '민주', '평등' 등의 사상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유를 억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자유롭게 산책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그 어떤 곳보다도 고인돌 시대의 자유가 제약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경찰의 손길이 닿아 있거나, 법이 엄하여 폭력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약된 곳일 것입니다.

경제활동에서도 폭력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힘들게 됩니다. 힌센 자가 마차와 사냥기구가 있어서 힘 약한 자들을 모아 사냥터로 데려가 사냥을 하게 하고 사냥된 분량의 최저의 분량만 대가로 주고 나머지 모두를 가져가도 아무도 항의하지 못하고 저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냥기구를 제공했고, 사냥터로 이동수단을 제공하였다는 구실로 힘 약한 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거의 다 빼앗아 가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냥된 것의 반만 소유하고 나머지 반을 대가로 지불하여도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힌센 자의 욕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량의 대부분을 가져가 몇 백 배, 몇 천 배 또는 몇 억 배의 재산을 이룹니다. 힘 약한 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힌센 자라도 토끼 한 마리 취할 수 없을 텐데 힘 약한 자들의 기여는 여지없이 무시되는 힌센 자의 자유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봇과 자동판매기를 동원하여 사냥터에서, 상점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수익의 전부를 가져갑니다.

진정한 자유란 잘못된 자유의 제약 아래에서만 진정한 수 있는 데 경제활동 면에서는 자유경제라는 것밖 아래 아직도 고인돌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소독이 힘든 과부와 고아들을 염려했습니다. 이들이 안정된 삶과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염려를 쫓아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등 국민 행복 순위 상위권 나라들의 국민들은 국민 총생산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초대 교회처럼 전부는 아니어도 아주 많은 세금을 내 과부와 고아들까지 함께 나누는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으로 물과 개스가 부족할 때 물 한 병에 7-8불로, 2불 하던 개스를 20불로 판매하는 것은 가진 자의 자유이며 경제 원리일 수는 있으나 시에서 벌금과 엄벌에 처하겠다는 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 편지



허종열(이나시오) 시인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대축일'이면 의례히 성가대에서 '라틴어 성가'를 부르는 것이다. 라틴어 성가는 우리말이 아니기에 가사를 이해할 수 없다. 성가대원들도 아마 가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이다.

라틴어 성가를 부르면, 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노래에 우선 긴장을 한다. 그러다가 이내 사제가 흐트러지면서 '성가대 따로, 신자들 따로'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어떤 신자들은 옆 사람과 소곤거리기까지 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제21항에는 '전례는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의 예식에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미사를 각 나라가 모국어로 거행하게 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했다.

벽에 붙여 놓은 제대 앞에서 사제는 벽을 보고 신자들은 사제의 등을 보고 미사를 드렸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였다. 사제가 가끔 돌아서서 팔을 벌리며 '도미누스 비스쿰'(Dominus Vobiscum) 하면 신자들은 '엔 궂 스피리투 투오'(Et cum spiritu tuo)라고 답했다. 그 말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뜻을 몰랐다. '사제 따로, 신자 따로' 이러한 라틴어 미사

를 전 세계에서 400년 정도 봉헌해

다. 종교개혁 등으로 세계교회가 분열하는 상황이라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말로 미사를 드리는 '다름'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죽은 말'인 라틴어로 '일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에는 몰처럼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구정물도 받아들이는 포용성,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같은 미덕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4개 헌장, 9개 교령, 3개 선언 중 전례헌장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것이 '전례의 전면적 개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후 1-2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사제와 신자들이 마주 보고 각국의 말로 미사를 봉헌하게 됐다. 신자들이 전례에 완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열심히 신자가 미사 중 기동 뒤에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현상도

없어졌다.

1963년 12월 4일 전례헌장이 반포된 지 5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대축일이면 라틴어 성가를 부른다. 축일은 기쁜 일을 축하하는 날이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 성인들에게 특별히 공경을 드리는 날이다. 대축일은 더욱 그렇게 하는 날이다. 신자들이 다 알아듣는 노래를 부르고 들으며 마음속으로나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어깨를 들썩여야 하는 날이다.

대축일에 우리가들 성가로 도저히 성이 안 찬다면, 국악 성가는 어떨까? 국악을 전공한 사제가 작곡한 좋은 곡들도 있으니 말이다. 라틴어 성가가 굳이 부르고 싶다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끼리 미사를 드릴 때만 부르면 될 것이다. 오래전 교회를 쇠신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반포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정신을 이례라도 제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구 마리아의 문화산책 (81)

우리 동네에서 삼십여 년 거주하다가 산 하나 너머 벨리모 이사를 간 교구가 정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옮겨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사를 갔기에 친분 두터이 쌓을 새도 없었던 분이다. 잊지 않고는 지내지만 가끔 안부나 묻고 사는 정도였는데, 어제 모처럼 베네딕도 자매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무 부러워서 전화했어요. 신문에 난 글을 읽고 어쩌나 좋아보이던지..." 가톨릭신문에 매주 문화산책 한 꼭지씩을 게재하는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를 꼭 걷고야 말겠다는 글을 읽어보셨다는 것. 전부터 그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생업에 매여 팍팍하게 살다보니 시간이 여의치 않은 채 그 저 마음만 굴뚝같았다. 그런

그 길은 잘 알다시피 전 년 동안 이어져 온 힐링길, 바로 스페인 산티아고로 향하는 카미노 데 산티아고(스페인어로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란 뜻이다. 해마다 십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찾는 그 길은, 프랑스 남쪽 생장피드포르에서부터 시작하여 파리에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서쪽에 위치한 산티아고까지 이어지는 무려 800km에 달하는 길로 그밖에 또 여러 코스가 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주의 주도로서 정식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이다. 산티아고(Santiago)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St. James), 불어권에서는 생 자크(Saint Jacques), 스페인어권에서는 산티아고, 우리식으로는 야고보 성인이겠다. 예수의 부름을



1568년의 산티아고 순례자.

받았을 때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으며 훗날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

9세기 초 어느 기독교 순례자가 빛나는 별을 따라 스페인의 이곳을 찾아왔다. 그때 발견된 유물로 야고보인이 밝혀지게 되었으나, 스페인 전교활동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의 유해가 어떤 연유로 스페인에 닿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알폰소 2세가 그 터에 대성당을 웅장하게 짓고 그를 스페인의 수호성인(聖人)으로 모시게 되었다.

9세기부터 유럽의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산티아고로의 성지순례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189년 교황 알렉산더 3

세가 산티아고를 로마, 예루살렘과 함께 성스러운 도시로 선포함에 따라 그리스도교 3대 성지(聖地)의 한 곳이 되었다.

중세 유럽의 산티아고 길은 가톨릭 순례자의 길로, 속죄를 위한 금욕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고행하듯 길을 걸었다는데 당시에는 실제로 여러 위험이 따르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였다. 1982년 교황이 산티아고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다시 산티아고 순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유네스코가 이 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새로이 각광받게 된다.

특히 파울로 코엘료가 산티아고 길을 걷고 난 후 1997년 발표한 '연금술사'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욱 유명해진다.

자신과 동행하는 내면(內面) 여행을 통해 삶의 본질과 마주해보고자, 또는 반복되는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보고자, 여태까지의 삶을 반추해보며 남은 생을 재설정하고자 산티아고 길을 느릿느릿 걷게 되었다는 순례자들, 전 구간을 완주하는 데 평생 한 달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고원으로 이어지는 파리에 산맥, 평원지대와 구릉지대, 끝없는 포도밭, 드넓은 목초지, 물결 이는 밀밭길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그곳.

산티아고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알려져 있는데, 순례길은 차도(車道)와 분리되어 있어서 사고의 위험도 없다. 급경사진 산악지대도 아니고 고산증세를 유발하는 고산지대도 없는 흙길로, 어느 정도 체력만 받침 되면 충분히 한 달 넘어 걸어도 별로 큰 무리가 없는 자연조건이라고 한다.

남프랑스 생장에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베낭을 짊어지고 하얀 조가비와 노란 화살 이정표를 따라 걷고 또 걷는 길. 이제는 은퇴를 한 터라 베네딕도 그녀에게도 여가가 생겨 구체적으로 산티아고 길을 실천에 옮기려던 중, 관절이 탈 나뎠다. 앞선 데 맞춘다고 미끄러지며 그만 절을 크게 다쳐 몇 달째 거동이 불편해 침대생활만 하는 중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의 버킷 리스트 상위에 오른 그 길, 간절히 그리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려던 참에 그녀는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며 불가피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 입장에서 아는 교구가 쓴 글, '산티아고 길을 반드시 걷고야 말리라는 다부진 각오 혹은 염원을 천명한 글을 읽었으니 나의 건각이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 베네딕도 자매의 처지를 나아 알 리 없었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민망하고 송구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럴 때 I'm sorry, 유감입니다라는 표현 외엔 달리 해줄 말이 포퓰 생각나지 않았다. 조심 잘하시고어서 쾌차하시길 기도할게요,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 언어가 공색하다 못해 길도는 느낌마저 들었다.

구 마리아 kubell49@gmail.com

성지순례 전문 마리아투어와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체험하는 순례 길을 떠남시다.

메우고리에
발현
38주년
순례



6/22 ~ 6/30 8박 9일
\$950 + 항공

메우고리에
유스페스티발
및
드보르브닉

- 이태리, 로마
- 산 조반니 토론토 성 비오 신부
- 성체성혈 기적의 오르비에토
- 유네스코가 지정한 "드보르브닉"(항공이동)
- 티할리나
- 메우고리에

7/25 ~ 8/7 13박 14일 \$3,300 이태리 포함
7/29 ~ 8/7 9박 10일 \$2,300 + 항공



주님이 남기신
발자취 따라...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스라엘
요르단
11박 12일

9/30 ~ 10/11
\$2,950(NY 출발)

- 나자렛, 가나 첫 기적
- 거룩한 변모 타볼산
- 갈릴레아 호수
- 요르단 세례터 등...
- 에리코, 베들레헴, 골란
- 베들레헴 성탄성당
- 주님 승천, 주님의 기도
- 겐사마니, *요르단·와디럼

패트라 노보산
모세의 구리뿔
(만수기 21장 8-9절)



그리스 • 터키 10박 11일



이stanbul, 아다나, 디르소, 카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에페소쿠다사이, 이즈미르, 아이발릭, 트로이, 입살라, 까발라, 데살로니카, 메테오라, 파트라스, 코린토, 아테네

10/20 ~ 10/30 \$2,850

세계 최초의 성모성지 과달루페 3박 4일



10월
로사리오 성월

10/1 ~ 10/4 \$1,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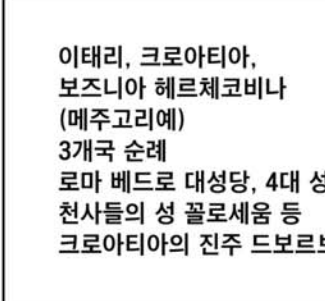
스페인 순례 10박 11일



마드리드, 톨레도, 아빌라, 알라메, 포르메사, 살라망카, 파티마, 산티아고(콤포스텔라), 레온, 루르드, 사라고사, 몬세랫, 바르셀로나

9/9 ~ 9/19 \$2,900

어머니의 땅! 메우고리에 순례



이태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메우고리에) 3개국 순례, 로마 베드로 대성당, 4대 성당, 천사들의 성 폴로세움 등, 크로아티아의 진주 드보르브닉

3/15/20 ~ 3/26/2020 \$2,800

모든 가격은 뉴욕 출발 기준입니다

MARIA TOUR
마리아투어

(212) 594-7773 (646) 808-7322

PO Box 104, Palisades Park, NJ 07650 | 담당: 박 아네스
이메일: MariaTour121@gmail.com | www.mariatourusa.com

본당 및 단체
성지순례 상담 환영

국경서 익사한 2살 아이와 아빠... 난민의 비극

교황과 미국교회 등 전 세계 애도 물결... 미국 反이민 정책 비판 여론 커져

【워싱턴 CNS】 미국으로 향하다 멕시코 접경 지역 리오그란데 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이민자 부녀의 사진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엘살바도르 출신 오스카 알베르토 마르티네스 라미레스와 그의 23개월 된 딸 발레리아가 6월 24일 리오그란데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멕시코 언론은 다음날 부녀가 꼭 끌어안은 채 익사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 사람들은 폭력과 가난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을 막는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분노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사진을 보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교황청 공보실 알레산드로 지스티 대변인은 6월 26일 기자들의 질문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진을 보고 크게 슬퍼하셨다”면서 “교황께서는 마르티네스 부녀를 비롯해 전쟁과 비극에서 벗어나려다 목숨을 잃은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스의 아내 타니아는 멕시코의 ‘라 호르나다’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난민 신청을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마르티네스 라미레스와 그의 딸 발레리아. 부녀는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급류에 휩쓸려 강에서 익사했다. CNS

하고 두 달을 넘게 기다리다가 6월 23일 함께 강을 건너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브라운스빌로 건너가기 위해 마르티네스가 먼저 딸과 함께 강을 건넜고, 다시 아내를 돕기 위해 되돌아왔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딸이 부서움에 강에 뛰어들었고, 마르티네스는 딸을 구하려 다시 강에 뛰어들었지만 부녀는 급류에 휩쓸렸다. 결국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타니아만 살아남았다. 12시간 뒤 멕시코의 구급대원들

이 부녀의 시신을 찾아냈다. 둘 다 물에 얼굴을 묻은 채였고, 발레리아는 아빠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교황은 6월 26일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그라스도인이라면 타인을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중남미 이민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있는 멕시코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매너리 디나르도 추기경은 6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사진은 하늘에

정의를 요청하는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디나르도 추기경은 “이 사진은 정치를 침묵시킨다”면서 “이 사진은 우리가 위기에 빠진 이민자들에게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나르도 추기경은 “하지만 슬프게도 이 사진은 우리 형제자매가 겪고 있는 실상을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들의 외침이 미 연방정부에게도 도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태를 후회하는 이들이나 누군가의 나태 결정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 이들의 죄를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했고, 교회법에서 부여한 형벌도 사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교황은 해양 사목의 담당 사제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항구적인 위험과 잦은 작위를 경험하는 노동자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한다고 말하고, “선원들이 없다면 세계 경제는 정체되고, 어부들이 없다면 세계 곳곳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을 포함해 추행과 불의를 경험한다”면서, “때로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외딴 항구에 버려지기도 하며, 폭풍 및 허리케인 같은 자연 위험 외에도 해적이 나 테러 공격 같은 인간의 위협도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 해양 사목자에게 특별 사면권 부여

선원에 내적 평화 주기 위해 ‘자비의 선교사’ 권한도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양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들에게 주교나 교황청에 유보된 특별 사면권을 부여했다.

교황은 6월 27일 유럽의 항구에서 활동하는 해양 사목(AOS) 지도인부 및 자원봉사자에게 “많은 선원이 해양 사목 담당 사제에게 다가가 많이 힘들어하는 약심의 문제를 털어놓는다”면서 “고향이나 고국을 멀리 떠나는 상황에서 해양사목 담당 사제와 대화하는 것은 이들 선원들에게는 희망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많은 선원이 내



선원을 비롯한 신자들이 2016년 아일랜드의 맥다라 섬에서 어부들의 수호성인인 맥다라 성인을 기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면의 평화를 찾도록 돕기 위해 모든 해양 사목 담당 사제에게 ‘자비의 선교사’(missionaries of mercy)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자비의 선교사’는 2015~2016

년 자비의 특별히년을 맞아 교황청에서 선정한 사제로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선포하고 특히 가톨릭신자에게 고해성사의 은총을 재발견하도록 격려했다. 교황은 모든 자비의 선교사에게 나

성 바실 (Los Angeles) 토 - 오후 7:00(회관) 주일 - 오전 7:00(회관), 9:00(학생/회관), 10:30(본당) 3535 W. 6th St 213) 389-3142	성 그레고리 (Los Angeles) 주일 - 오전 7:00, 9:50, 오전 11:15(본당/이중언어), 오후 7:30 900 S. Bronson Ave. 323) 935-3429	성 정하상 바오로 (North Hill) 주일 - 오전 9:00(영), 10:30 11111 Alemany Dr. 818) 893-2916	성 라파엘 (Nowalk) 토 - 오후 6:30 주일 - 오전 8:00, 10:00, 오후 12:00(이중언어) 12366 Rosecrans Ave. 562) 623-0700	벤츄라 (Ventura) 주일 - 오전 10:00, 오후 7:00(산타마리아) 601 S D St Oxnard 805) 263-6215
성 김대건 안드레아 (Riverside) 주일 - 오전 9:30(영), 10:45 4750 Challen Ave. 951) 352-8500	성 가브리엘 (Rowland Hts.)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8:00, 9:30(이중언어), 11:00 2035 S Otterbein Ave. 626) 965-7553	샌디에고 (San Diego) 토 - 오후 7:30 주일 - 오후 12:00(영), 12:30(한) 3327 Glencolum Dr. 858) 292-1960	성 프란치스코 (Torrance) 토 - 오후 6:00(청년) 주일 - 오전 7:00, 10:00, 11:30(영) 2040 Artesia Blvd. 310) 324-8159	백삼위 (Torrance) 토 - 오후 7:00(청년) 주일 - 오전 7:30, 9:30(영), 11:00 2701 W. 237th St. 310) 326-4350

성지순례는 엔젤투어와 함께..

멕시코 과달루페

세계 최초 성모발현지 !
2박3일 \$ 990
3박4일 \$1,190
4박5일 \$1,300
5박6일 \$1,500
2019년 8월 12일 출발
2019년 9월 16일 출발
매월 출발

과달루페-페오띠와칸-부에블라-소깔로-유타칸반도-캄페체 선교지 등

한국 순교성지+ 맛 기행

순교성지 순례와 함께 전국일주 미각 기행 !!!
11박 12일 \$3,290
2019년 10월 2일 출발

인천-서울-강곡-부여-전주-목포-흑산도-홍도-여수-통영-부산-울진-삼척-정동진-속초-평창 생태마을-서울-명동 대성당-절두산성지 등

이스라엘 성지

거룩한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6박 7일 \$2,390
+요르단 10박11일 \$2,890
2019년 11월 17일 출발
2020년 3월 23일 도보순례

스페인 성지 일주

+루르드(프랑스)
+파티마(포르투갈)
10박 11일 \$3,190
2020년 4월 20일 출발

바르셀로나-몬세라-루르드-로몰라-부르고스-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파티마-포르도바-그라나다-톨레도-아빌라-마드리드

야고보성인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순례 115km
15박 16일 \$3,510
도보 115Km (사리아 출발)
2019년 9월 10일 출발

산티아고 도보순례 800km
39박 40일 \$3,590
도보 800km(생지앵-폼보스텔라)
2020년 9월 출발

그리스+터키 성지
바오로사도의 발자취...
9박 10일 \$3,290
2019년 9월 25일 출발

이스탄불-가파도키아-데린쿠유-콘나-알바츠-파묵칼레-사르디스-실룩-쿠사다스-에페소-히오스-피레우스-고린토스-아테네

이탈리아성지 일주

가톨릭의 심장
10박 11일 \$2,890
2019년 10월 출발

밀라노-피렌체-아씨시-로마-바티칸

남미성지/문명탐방

남미성지 일주
10박 11일 \$4,390
2019년 12월 16일 출발

리마-쿠스코-부에노스 아이레스-이파수-리오 데 자네이루

페루 완전정복

5박 6일, \$2,390
2019년 12월 16일 출발

페루/볼리비아 우유니

8박 9일, \$3,890 **2019년 12/16출발**

ANGEL
Tour &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www.angeltourtravel.com

e-mail:angeltourtravel@gmail.com Katak ID:angeltour
Tel. 213-999-6294 대표:이경혜 안젤라

교황청 “中 사제들 정부 등록은 양심에 맡겨야”

“중국의 법과 교회 원칙
어긋나지 않은 방안 필요”

【바티칸 CNS】교황청이 중국의 주교와 사제들에게 정부에 사제로 등록할지 말지는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 신자들에게는 이들 성직자의 선택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청은 중국 성직자의 등록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독립과 자주, 교회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교황과 보편교회와의 유대를 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6월 28일 ‘중국 성직자의 정부 등록에 관한 교황청의 사목 지침’(이하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교황청은 이 문서에서 공개적으로 사목 활동을 하기 위해 정부에 등록을 결정하는 것은 ‘간단과는 아주 먼’ 선택이라고 인정했다.

교황청은 “중국교회가 나아가는 여정에서 교황청과 주교,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 모두 인내와 겸손으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한다”면서 “중국교회



중국 베이징 인근의 한 간이 성당에서 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교황청은 중국의 주교와 사제들에게 정부에 성직자 등록을 할 때는 양심에 따를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CNS 자료사진

의 여정에는 큰 희망이 있지만, 어려움도 인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중국교회의 성직자들에게 “교황청은 계속해서 중국 정부와 대화를 통해 중국 법과 가톨릭교회의 원칙에 거슬리지 않고 정부 등록을 허용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한편 지침은 “주교나 사제가 정부에 등록을 했지만 정부의 등록 기준이 가톨릭 신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성직자는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서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을 때는 적어도 구두

로 한 증인 앞에서 이 같은 의사를 표시하고, 교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에 따르면, “성직자의 정부 등록은 오로지 교구 공동체의 선익을 키우고, 일치의 정신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화와 교회의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황청은 또 “양심에 따라 현재의 조건에서는 정부에 등록하지 못하는 중국 성직자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정부의 성직자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중국의 헌법이 공식적으로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체결된 교황청과 중국의 잠정협약은 가톨릭 신앙 안에서 교황과의 일치성을 위한 특별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교황청은 “따라서 중국교회의 독립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소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톨릭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황, 일본 사목방문 “정부가 폭력 조직 방관… 평화 공약 파기 유감”

11월 23~26일 예정

【외신종합】일본 ‘교도통신사’가 정통한 교황청 소식통의 말을 빌려 오는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23일 일본에 입국해 24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한다. 교황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생존자와 만남 예정이다. 25일에는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루히토 천황을 만난 뒤, 도쿄돔에서 일본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다. 이어 26일에는 동북부 대지진 피해자를 만나 위로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사’는 교황이 방일 기간 중 핵무기 반대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아공 주교회의 성명

수천 명 난민 집 강탈한

무장 민병대 활동 비난

【방기 CNS】중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의 주교들이 친정부 성향의 무장 민병대를 비난하고, 정부가 평화 공약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아공 주교회의는 보쌍고아에서 열린 일주일간의 정기총회를 마친 뒤 6월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모든 정치체가 일부 민병대와 결탁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이런 폭력 성향

의 단체가 조직되도록 방관할 수 있는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서명하자마자 파기되는 합의라는 말을 쓴 위선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교들은 포스트 아라상제 투아데레 대통령의 강경 후원자들이 야당과 싸우기 위해 만든 ‘샹어 운동’(Movement of Sharks)이 6월 20일 방기 수도원 지역을 유혈 무대로 만들고 평화 및 화해에 대한 희망이 어떻게 ‘독선의 제대에서 희생되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프랑스계 스페인인 이네스 니에메 산초 수녀(77-예수의 딸수녀회)가 살해됐다.

주교들은 외국 용병 단체가 비옥한 땅을 점령하면서 “심각한 기근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수천 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집을 불태워 강탈당해 돌아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교회의 의장 네스토르 데시레 농고 아지약바와 주교와 방기 대교구장 듀도네 은자빠라잉가 추기경이 성명에 공동 서명하고, “이들 용병이 저지르는 불의와 고통으로 하느님의 길을 벗어나 폭력과 복수의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이래 민병대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아공 인구 450만 명 가운데 1/3은 가톨릭신자이다.

소수 종교자유 침해 여전히 심각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각종 사회·정부 폭력과 구금 등 실태 밝히

【워싱턴 CNS】미국 국무부에서 새로 발표한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 종교인에 대한 각종 정부 및 사회의 공격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6월 21일 2018년 각국의 자료를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다. 중국의 종교 자유 상황에 대해서만 모두 87페이지에 걸쳐 보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국가 및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종교에 대한 통제 및 종교인의 자유와 활동에 대한 제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등록 및 미등록 종교 관련 활동 단체 추종자들을 고문, 육체적 학대, 체포, 구금 또는 감옥형 선고, 구금 중 사망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의 경우 “일부 지방 및 성 당국에서 지방 및 국가 단속 시스템을 이용한 종교 활동 관리에 저항하는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슬람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고 이슬람을 모독하는 배교 및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옥형에 처하고 있다”면서 “2004년 이래 사우디아라비아는 1998년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 관심 국



지난 6월 11일 홍콩 입법원 앞에서 열린 인도법 반대 시위에서 신자들이 천주교 기도예식에 참여하고 있다. CNS 자료사진

가로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미국 대사관은 정부 관리, 종교 단체, 비정부기구, 언론인, 인권감시기구, 학자, 미디어 등을 통해 모은 정보를 기초로 해서 국가별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사무국은 별도 소식통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다.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정부가 주로 가톨릭인 종교 단체 및 지도자를 위협하고 임의로 체포하고 어떤 경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가톨릭교회가 선거를 지원하고 지난 1월 및 2월의 항의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라고 한다”고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에서는 정부가 345명의 교회 지도자 및 관리자를 아무 혐의나 재판도 없이 계속 구금하고, 평신도의 경우 800명에서 1000여명까지 구금했다. 또 러시아에서는 경찰이 소수 종교인의 예배장소 및 가정집을 습격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 및 IS가 인구 밀집 지역 및 종교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사법 당국이 신성모독법을 이용해 예언자 무함마드 모독 등 다양한 죄목으로 소수 종교인들을 종신형부터 사형까지 처벌하고 있다. 적어도 신성모독죄로 77명이 투옥되었으며, 28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中 산둥성 지난교구 홍자러우주교좌본당 주보 축일

중국 산둥성 지난교구의 홍자러우주교좌본당이 6월 28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아 본당 주보 축일을 경축했다.

홍자러우주교좌본당 주보 경축 미사는 이날 오전 9시 주임 후보 신부 주례, 장제 신부와 자오려렌 신부 공동집전으로 봉헌됐다. 미사에는 본당 신자들과 지난교구 각 본당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후보 신부는 강론에서 “오늘은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본당 주보 축일이며 본당 봉헌 114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또 본당의 예수 성심 합창단의 날이기도 하니 모두 이날을 함께 즐기자”고 말했다. 이어 이날 복음을 통해 예수 성심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설명했다.

후 신부는 “자비의 예수 성심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다가가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여 이웃과 파스함과 관심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사 중에는 합창단 단원들에게 1년 동안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당부하는 과전예식을 거행했다. 후 신부는 또 사제 성화의 날을 맞아 세계교회와 함께 사제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당부했다.

주보 축일을 경축하기 위해 본당은 오전 6시와 9시에 미사를 봉헌하는 것 이외에, 성체조배를 하고, 예수 성심상 촛불 거동 행렬을 했다.

(信德社 제공
번역 임병중 신부(대구대교구 총로본당 주임))

성 마태오 (Tunjunga)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7:45, 9:30(영), 10:45 7245 Valmont St. 818) 951-0879	한국 순교자 (Westminster)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7:30, 9:30, 11:30(영) 7655 Trask Ave. 714) 897-6510	성 요셉 (Los Angeles) 주일 - 오전 7:00, 09:00, 11:00(영) 20124 Saticoy St. 818) 998-1155	중북부 지역 (IL, IN, KY, MI, MN, MO, NE, OH, WI)	한국 순교자 (Chicago-IL)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9:00, 11:00, 11:00(영) 4115 N.Kedvale Ave. 773) 283-3979
성 정하상 바오로 (Des Plaines-IL)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7:00, 9:30(영), 11:15 675 Dursey Ln. 847) 699-6334	성 김대건 안드레아 (Itasca-IL) 토 - 오후 6:00 주일 - 오전 7:30, 9:30(영), 11:00 1275 N. Arlington Hts Rd. 630) 250-0576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IL) 주일 - 오전 11:00 7556 46th St. 317) 542-0863	성 김대건 안드레아 (Detroit-MI) 주일 - 오전 8:00, 10:00, 11:30(영) 21177 Halsted Rd. 248) 442-9026	성 김대건 안드레아 (St. Paul, MN) 주일 - 오전 11:15 1435 Midway Parkway. 651) 644-1605

SUNNYSIDE SERVICE
Cremation · Funeral

WWW.SUNNYSIDECREMATION.COM

써니 사이드 장의사

화장전문, 국군장, 마이 스토리, Customized 장례식

1(800)232-5023 / 장례적금

(월 \$20 부터 시작)

슬픔을 당하신 여러분의 곁에서
가족처럼 돕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바로
써니사이드의 가족입니다.

Peace of Mind...
Wishes Fulfilled...

24시간 FD #2224

가톨릭방송을 들읍시다.

KCBC 방송 안내

- 차동엽 신부님의 '주일복음묵상'
- 김일실 대제사의 '투데이 오늘은'
- 원영배 부제의 '하늘과 땅의 노래'
- Anthony Hong 과 변 세라피나의 가톨릭교회 소식
- 수녀님과 함께하는 무아 방영용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가

KCBC 듣는 방법

AM1230 우리방송에서
주일 오전 6-8시

or

www.kbccla.podbean.com
kbcbus podcast

KCBC 미주 가톨릭방송

3435 Wilshire Blvd. #2620
kbcus@gmail.com

Los Angeles, CA 90010
(213) 256-5708

하늘에 닿은 간절한 기도, 평화의 문 다시 열었다

8년 만에 전국 교구서 모여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봉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현 주교)가 8년 만에 전국 규모의 ‘한반도 평화기원미사’를 봉헌했다. 6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봉헌한 이날 미사에는 전국 16개 교구 신자 2만여 명이 참례해 평화누리공원을 가득 메웠다.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은 이날 미사 전에는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평화음악회를 열었다. 신자들은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길 바랐다. 그날의 뜨거운 기도 현장을 소개한다.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이 6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평화음악회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기원미사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



8개 교구 대표 신자들이 한반도기를 봉헌하고 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6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거행한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중 ‘평화’라고 쓴 하얀 천을 묶은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사진 성술기 기자

그 속에서 놀 났 때가 그립습니다~

◎…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열린 평화음악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무대 첫 순서로 나선 수원가톨릭소년소녀합창단은 영화 ‘오빠생각’에 나온 ‘고향의 봄’을 비롯해 ‘평화의 기도’ 등을 합창했다. 무대를 끝낸 단원들은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신세희(크리스티나·14·수원교구 청덕성모승전본당)양은 “전쟁으로 희생된 이산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염수정 추기경님의 말씀에 울컥했다”면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록그룹 부활은 ‘새벽’, ‘사랑할수록’, ‘네버엔딩스토리’ 등을 노래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미사 직전 조성주(다나엘) 사제가 대본으로 ‘평화’라고 쓴 하얀 천을 2개의 애드벌룬에 묶어 봉헌예식 중 하늘 위로 띄우기도 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 이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는 묵주기도로 그 시작

을 알렸다. 신자들은 더욱 소리 높여 기도했다. 안동교구 신자들도 기도에 힘을 신기 위해 이른 새벽 출발해 4시간 만에 평화누리공원에 도착했다. 교구 사목국장 김정현 신부는 “햇볕은 뜨거웠지만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평화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봤다”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사자로 나선 김명숙(에밀리아나·의정부교구 파주 봉일천본당)씨는 “남북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자들이 모여 기도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기원미사를 공동집전한 주교단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다 건너… 평화를 위하여!

◎… 평화누리공원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자들로 붐볐다. 특히 이번 미사에는 16개 교구와 남녀 수도회, 신심단체 등 전국 각지의 신자들이 참례했다. 교구는 달랐지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였다.

바다 건너 제주교구 신자들은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하루 전인 24일 오전 9시경 비행기에 올랐다. 1박2일 평화 순례에 나선 90여 명의 교구 신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고용삼(베네딕도·제주 화북본당) 회장은

“평화를 갈구하는 신자들의 마음은 어느 교구나 같다”면서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아픔에 공감하는 신자들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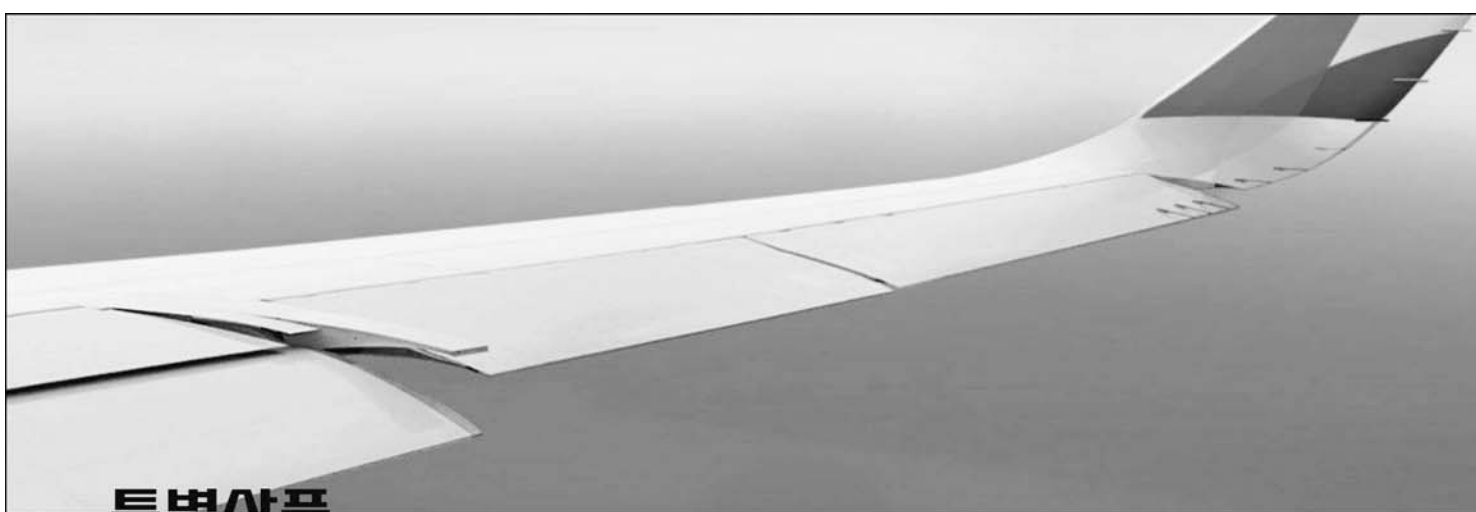
한국 주교단도 기도로써 연대

◎… 더불어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한 이날 미사는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 등 12개 교구 한국 주교단과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 박현동 아바스(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등이 공동집전해 평화를 위해 기도으로써 연대했다.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축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조화와 화합을 추구하고자 노력할 때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전쟁의 비극을 겪었던 이들의 마음이 평화로 따뜻해지기를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성술기 기자 chlara@catimes.kr / 사진 박민규 기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St. Louis-MO) 주일 - 오전 10:30 8665 Olive Blvd. 314) 993-1277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Milwaukee-WI) 주일 - 오전 10:30 1854 W Windlake Ave. 414) 810-1405	성 김대건 안드레아 (Cincinnati-OH) 주일 - 오전 11:00 3171 Struble Rd.	클리브랜드 (Cleveland-OH) 주일 - 오전 10:00 2310 W 14th St. 216) 861-4630	성 김대건 안드레아 (Columbus-OH) 주일 - 오전 10:30 221 Hanford St. 614) 732-0714
성 김대건 안드레아 (Madison-WI) 토 - 오후 5:00 St. Thomas Aquinas Catholic Parish 602 Everglade Dr. 608) 960-3338	중남부 지역 (AZ, CO, KS, LA, NV, OK, TX)	피닉스 성 김효임 콜롬바 (Chandler-AZ) 토 - 오후 5:00 주일 - 오전 10:30 1375 N McClintock Dr. 480) 446-7121	바다의 별 성모 마리아 (Tucson-AZ) 주일 - 오전 11:00 3820 N Sabino Canyon Rd. 520) 885-0512	덴버 성 로렌스 (Aurora-CO) 주일 - 오전 7:00, 11:00 4310 S. Pitkin St. 303) 617-7555



특별상품

- **H+양지병원 특별검진 프로그램**
\$1,548.00 부터(뉴욕출발 기준)
항공료 + 기본검진 + 수면워네시경 + 대장워네시경
- **비즈니스 클래스 고객을 위한 혜택**
건강검진 Buy 1 GET 1 FREE (2인 동반시)

단체관광 크루즈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가고파
GAGOPA TRAVEL

김 소화 데레사 / 유 루시아

201-3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 NJ 07605
gagopatrazel@gmail.com

ASIANA 380
AIRTEL PROMOTION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권 구매시
\$20.00 상당 H-mart 선물권 증정



with English guide

Must Experience
10 Korea Attractions

글로벌일주 4박5일

“품격이 다르다! 일정이 다르다! 호텔과 식사가 다르다! 이제는 고품격 글로벌 투어!”

서울-부여-전주-광주(1박)-보성-순천-여수(1박)-
진주-부산-경주(1박)-안동-원주(1박)-평창-강릉-
설악산-서울

매주/금
\$659부터+항공

-본요금은비수기기준요금입니다. (팀/음선불포함)-

HOT! 인기 여행지 특선



\$1,279부터(항공+투어)



항공료 + \$399부터



\$1,299부터(항공+투어)



항공료 + \$360부터

“김대건 신부님 첫 발 닿은 곳 자부심만큼 신앙열정도 크죠”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관에 전시된 김대건 신부 흉상

제주교구 용수성지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성당 뒤편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제주교구 용수성지 제공

이국적인 풍경, 천혜의 섬 제주.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지만 아직은 관광지로 여겨지지 않아 천만다행인, 보석 같은 바다가 있다. 제주 서쪽 한경면 ‘성 김대건 해안로’ 6km가량 되는 바닷가 해안도로는 아름다운 제주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띈다. 그 끄트머리 김대건 신부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디딘 포구,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한 땅이 놓여 있다. 지금은 깔끔하게 개발이 된 용수성지, 그곳을 신심이 돈독한 용수공소의 신앙 공동체가 지키고 있다. 용수공소는 제주교구에서 3번째로 설립된 한경면 신창본당(주임 정필종 신부) 관할이면서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이 들어서 있는 용수성지(담담 허승조 신부) 안에 자리잡고 있다.

김대건 신부 첫 표착지의 자부심

용수공소 신자들은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라는 두 가지 큰 축복을 선물 받았다. “김대건 신부님이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여기예요. 복 받은 거죠. 우리는 신자들 모두 그에 대한 자부심이 무진장 큼니다. 그래서 신앙도 당연히 깊어요.”

투박하지만 확신에 찬 말투로, 용수공소 이수찬(시메온·68) 회장이 말했다. “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하는 투다. 한국 최초의 사제가 처음 발을 디딘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용수공소 신자들의 자부심은 드높기 이를 데 없다.

포구에는 자그마하지만 누구라도 알아보기 쉽게 표지석이 서 있다. “이 곳은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범선 라파엘호로 1845년 9월 28일에 표착한 바닷가이다.”

표지석 위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용수성지가 자리잡고 있다. 제주교구는 1999년 9월 19일 이곳을 성지로 선포했다. 성지 왼쪽에는 기념성당, 오른쪽에는 배의 형상을 본떠 세운 기념관이 있다. 마당 한 쪽에는 김대건 신부가 타고 온 배를 복원한 라파엘호가 놓여 있다.

용수공소 오창해(즈카리아·61) 선교사는 “용수공소 신자들의 신앙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하다”며 “일상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지향과 기준은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말했다.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

용수공소가 설립된 때가 1949년 9월 1일, 지금의 제주 주교좌중앙본당인 제주본당 관할로 설립됐다. 1952년에 신창본당이 설립되면서 소속이 변경됐다. 그리고 2008년 9월 20일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성당이 봉헌됨에 따라 공소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 기념성당의 정면은 김대건 신부가 사제품을 받은 중국 상하이 진자샹(金家巷)성당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고, 지붕은 거센 파도와 그에 맞서 싸우는 라파엘호를 형상화했다. 이전에 공소로 사용하던 곳은 현재 보존돼 있긴 하지만 공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용수공소가 속한 신창본당 관할 지역은 거의 교우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다. 전해지는 말로는 한때 전체 인구의 80%가 신자였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이 지역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눈에 띄는, 밝이만

지역 어르신 목욕 봉사 등 이웃 사랑 실천에 한마음 함께 발 일구며 공소 운영

빨갈게 반짝이는 십자가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한다. 지역 자체가 천주교 교우촌격이라 개신교 예배당이 없는 탓이다.

특별한 것 없이 소박하지만, 공소 공동체의 신앙 전통은 지금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한 돌봄은 목욕 봉사, 함께 일구고 거두는 공동체의 전통은 공소 소유 1000여 평 밭 경작에 그대로 담겨 있다.

공소 활동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 대상의 목욕 봉사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른 아침이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욕 봉사와 한의원 진료를 간다. 한경농협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아가 혼자서는 몸을 씻기 힘든 어르신들을 정성들여 씻기고 입한다. 고산경회한의원에서는 무료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침, 부항, 찜질 등을 시술해 준다.

성지 곁에는 꽤 넓은 평수의 풀라비 밭이 있다. 근 1000여 평에 이르는 규모의 풀라비 밭은



올해 7월부터 9월 9일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소 인근 풀라비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공소 신자들.

전적으로 공소 공동체 신자들의 노력 봉사로 경작된다. 오창해 선교사는 “작지 않은 밭이지만 신자들이 내 일처럼 나서는 덕분에 밭 경작이 무난하게 이뤄진다”며 “연 1500박스 정도는 거뜬하게 수확하고 그 수익금은 공소 운영 등 공동 경비로 쓰여진다”고 설명했다.

공소 설립 70주년을 보내며

용수공소는 두 달 뒤인 9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다. 거창하고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성 김대건 신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소 설립 후 지금까지 돌봐 주신 하느님과 은인들에 대

한 감사기도, 설립 70주년의 의미와 뜻을 되새기기 위한 9월 기도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공소 신자들의 생업은 주로 농사다. 양파, 감자, 마늘, 콜라비 등등 안 짓는 농사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이모작, 삼모작을 짓느라 일년 내내 바쁘다. 오 선교사는 “신자들이 모두 바쁜 생활을 하지만 결코 주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며 “신앙 생활의 여러 가지 의무와 계명들을 철저히 할 정도로 지켜 나간다”고 말했다.

물론 용수공소 역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에서 비켜서 있지는 못하다. 무엇보다 공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젊은이들은 도회로, 물로 떠나는 탓에 고령화가 극심하다. 공소회장 이수찬씨도, 총무 김경민(요한·66)씨도 막내축에 끼고 공소 신자 대부분은 70세가 훌쩍 넘는 고령이다. 올해 97세의 김백옥(가브리엘)씨가 최고령이다. 김경민씨는 “저희가 어린 탓에 회장이랑 총무를 맡게 됐다”며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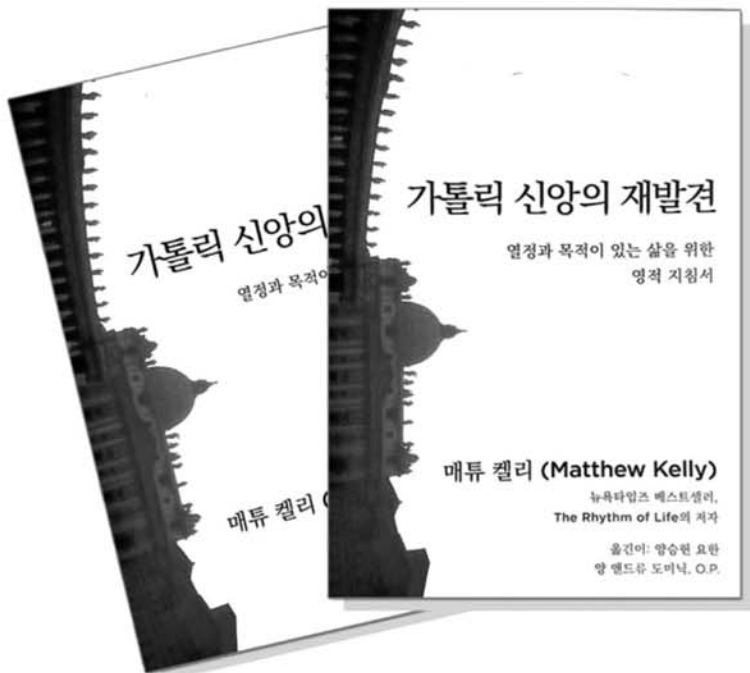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주나 전임으로 인해 공소 신자 수가 미미해가며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2017년말 실거주 기준으로 78명이었는데 2018년말에는 2명이 늘어나 80명이 됐다. 용수성지를 찾는 이들도 점점 늘어난다. 2015년 4월 순례객 20만 명, 2018년 2월 순례객 30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자들이 순례를 올 테니, 공소 신자들의 몫도 더 커질 터이다.

김대건 신부에 대한 자부심과 아름다운 풍광, 공동체의 신앙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용수공소 신자들은 지금까지처럼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앞으로도 간직해나갈 생각이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성 김대건 (Colorado Springs-CO) 주일 - 오전 9:30(영), 11:00 4515 E. Pikes Peak Ave. 719) 638-0100	캔사스 (Lenexa-KS) 주일 - 오전 11:00 9150 Pflumm Rd. 913) 563-7896	뉴올리언즈 한마음 (Metairie-LA) 주일 - 오전 10:00 4812 W. Napoleon Ave. 504) 888-2366	성 정하상 바오로 (Las Vegas-NV)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8:00, 10:00 6080 S. Jones Blvd. 702) 222-4349	한국 순교자 (Oklahoma-OK) 주일 - 오전 11:00, 오후 3:00 7517 S. Linn Ave. 405) 681-6464
성 김대건 안드레아 (Austin-TX) 주일 - 오전 11:00 6523 Emerald Forest Dr. 512) 326-3225	샌 안토니오 한국 순교자 (Boerne-TX)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10:30 7655 Curres Circle 210) 698-3877	달라스 성 김대건 (Irving-TX) 토 - 오후 6:00 주일 - 오전 10:00, 오후 12:00(영), 3:00 2111 Camino Lago 972) 620-9150	휴스턴 성 김대건 (Houston-TX)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9:00, 10:30, 오후 12:00(영) 1706 Bingle Rd. 713) 465-2682	포트워스 한국 순교자 (Hurst-TX) 주일 - 오전 10:00, 오후 3:00 451 Brown Trail 817) 788-5530

저자 매튜 켈리는 가톨릭 영성의 진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복잡한 삶을 사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쾌한 문장으로 설명해 줍니다.



열정과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한 영적지침서

가톨릭 신앙의 재발견

어느날 밤, 신시내티에서 고향인 캔사스 시티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짐 캐슬은 좌석에 편안히 앉아 비행기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배의 항적과 같이 정적이 좌석 사이의 복도를 타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앞을 바라보던 짐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복도를 걸어 들어오고 있는 사람은..... 두 명의 수녀였다. 복도를 따라 걸어오던 두 명의 수녀는 그의 좌석에 이르자 걸음을 멈췄다. 그와 함께 비행기 좌석에 앉아갈 사람은 다름 아닌..... (18장, 목주기도 중에서)

행복하십니까? 진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 저자 : 매튜 켈리 ◆ 옮긴이 : 양요한 ◆ 가격 : \$10 (배송료 별도) ◆ 주문 : 가톨릭신문사 323-735-0505



2018년 빈에서 열린 '보자기 워크숍'에서 이미지 교수(왼쪽 세 번째)가 현지인들에게 보자기 작품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미지 교수 제공

이미재 교수, 오스트리아서 30번째 개인전 ‘우연과 기회’ 주제로 8월 말까지 추상화·보자기 등 39점 선보여

“아름다운 풍광의 알프스 산마을에서 30번째 개인전을 갖게 되어 의미가 큼니다. 자연과 영혼의 ‘얹’을 다시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체칠리아·70·서울 용산분당) 청주대 공예디자인학과 명예교수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오스트리아 라우리스(Rauris)의 라우리제르 탈뮤zeum(Rauriser Talmuseum)에서 30번째 개인전을 연다.

‘우연과 기회’(Chance and Opportunity)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11점의 추상 회화와 14점의 보자기, 디지털 판화와 디자인 제품, 그리고 1984년 이 교수가 제작한 ‘바티칸 제대보의 견본 등 총 39점이 전시된다. 라우리스에서 외국인들 초대해 열리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의 벨트 박물관(Welt Museum)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보자기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연히 라우리스를 찾았던 이 교수는 해발 950m 산자락에 위치한 그림 같은 풍경의 마을 모습과 순박하고 사람냄새 나는 주민들에게 반해 직접 박물관 관장과 만나 전시회를 성사시켰다.

“삶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다시 손에 잡을 수 없고 또 흐르다보면 온갖 것들을 다 만나게 되지요. 이 만남의 우연들에서 어떤 기회가 우리



오스트리아 라우리스에서 30번째 개인전을 갖는 이미지 교수.

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았는지... 결국 살 날 만큼의 우연과 기회의 힘은 계속된다는 의미를 작품들에 담았습니다.”

이 교수는 ‘비움에서 시작해 ‘자연과 영혼’, ‘내 생애 미래는 오늘이다’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작품 활동을 계속 해 왔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추상화 가운데에는 ‘펜티멘토’(pentimento)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펜티멘토란 겹쳐 그린 그림의 아래층에 이미 지웠던 형태나 선들이 희미하게 비쳐 보여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생의 씨줄과 날줄을 엮듯이 더하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형상들을 이끌어냈다.

작품 가운데 ‘Fantasy’19 01-sublimation of salvation(구원의 승화), ‘Fantasy’19 02-the victory of

death(죽음의 승리)’ 등은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낸다.

이 작품들에 대해 이 교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두려움 없이 받아 들어 힘차게 승전하고 싶은 꿈을 담았다”고 말한다.

그는 신자임을 앞세워 작품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신의 손길이 삶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다.

“영혼이 맑으면 삶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물, 바람, 구름, 산, 하늘 그리고 달과 별... 이들을 동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은총입니다.”

이 교수는 현지인들에게 한글, 보자기 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도 함께 한다.

전시장에 들어가기까지 박물관 방 3개를 통과하는 길에 50m 길이 명주 천에 생명의 형상들과 훈민정음을 표현한 작품을 걸어 한글의 형성 원리와 우수성을 알린다. 천 조각을 이어 만든 보자기 작품을 전시해 한국 여인들의 근면절약의 지혜와 구조 대칭의 미학을 보여준다.

라우리스는 여름철 유럽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라 주민들은 물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들 또한 전시회를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이 교수는 추상회화, 보자기 작업 외에 디지털 섬유 판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으며,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한에 맞춰 국내산 아마사로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제대보를 제작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sophiaji@catimes.kr



박형석 작

서원만·박형석·권태전 작가 ‘3인의 풍경스캐치전’... 13일까지

서양화가 서원만 작가, 한국화가 박형석·권태전 작가가 7월 1~13일 대구 지산동 에스마로 갤러리에서 ‘3인의 풍경

스캐치전’을 열고 있다. 살아있는 선과 색이 인상적인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각기 다른 표현방식을 추구하는 작가들이 풍경스캐치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대상을 어떻게 그려내는지가

이번 전시의 관람 핵심이다.

서원만 작가는 볼펜으로 그린 그림에 수채화의 맑은 색감을 보았다.

박형석 작가는 담백한 느낌, 권태전 작가는 생동감과 기품을 살려 한국화의 고유한 맛을 추구했다.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

cpbc 가톨릭평화방송 7월 라디오 편성 안내(서울·대구·광주·대전·부산 종합)

시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M 4	개시음악 및 멘트						
5	40	매일미사 기쁜 소식 밝은 세상					안병철 신부의 성서묵자리 1부
6	05	삼총기도 cpbc 성경특강 오늘의 강론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안병철 신부의 성서묵자리 2부
7		오늘도 새롭게					박동훈 신부의 생생교리
8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라디오드라마 바보 김수환
9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생명은 사랑입니다
10		황우창의 음악정원 1부					최대환 신부의 음악서재 1부
		황우창의 음악정원 2부					
11		(대구- 행복한 세상 931			(대구- 행간에서 읽는 신앙	(대구- 행간에서 읽는 신앙(재)	최대환 신부의 음악서재 2부
		(대전- 생방송, 평화를 빙니다!					
12	15	(삼총 종소리) cpbc 정오종합뉴스 (대구, 광주, 부산- cpbc 정오종합뉴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신부님 신부님 우리신부님 1부			(부산- 사랑이 있는 세상 스페셜		
		(부산- 사랑이 있는 세상 1부			(부산- 하느님과 하느되는 하루 1부	(부산- 사랑이 있는 세상 토요특집	
PM 1		신부님 신부님 우리신부님 2부			토요특집 "신부들의 수다"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부산- 사랑이 있는 세상 2부			(부산- 하느님과 하느되는 하루 2부	(부산- 토요특집 "신부들의 수다"	
2		그대에게 평화를 1부 (광주- 황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대구- 그대에게 평화를 1부			천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대구- 신앙특강(재)	교회음악으로의 초대 1부
3		그대에게 평화를 2부			천양 거룩한 기쁨		교회음악으로의 초대 2부
4	05	기도의 오솔길 (대구- 가톨릭 뉴스 -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오늘의 강론(재)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민병훈 감독의 영화 터치		군중의 시간
5		열린세상 오늘 (광주- 함께하는 세상, 오늘 (부산- 다정다감 다섯시					양미경의 우리가 무지개처럼
6	05	삼총기도 박철의 땀땀한 라디오 1부					신부님과 나누Go! 신나Go!
7		박철의 땀땀한 라디오 2부					방송미사 (대구 방송미사(월1회)
8		김도향의 명동연가 1부					
9		김도향의 명동연가 2부					
10	05	가톨릭 뉴스 FM 음악공감 1부			FM 음악공감 -이준형의 토요스페셜 1부	교회음악으로의 초대 1부(재) (부산-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1		FM 음악공감 2부			FM 음악공감 -이준형의 토요스페셜 2부	교회음악으로의 초대 2부(재)	
12		당신을 위한 BGM					
AM 1	종료	라디오 성경					

주파수(㎒)·서울 105.3, 대구 93.1, 포항 96.9, 광주 99.9, 대전 106.3, 안동 100.7, 부산 101.1, 울산 94.3

오마하 (Omaha-NE) 주일 - 오전 11:00 2617 South 31st St. 402) 345-1621	동북부 지역 (CT, DE, MA, NJ, NY, PA(N), RI)	커네티컷 (Wethersfield-CT) 주일 - 오후 12:00 56 Hartford Ave. 860) 529-1456	보스턴 성 앙투안 다블뤼 (MA) 주일 - 오전 10:00(영), 11:30, 오후 4:30 45 Ash St. Auburndale 617) 558-2711	뉴저지 성 김대전 안드레아 (NJ) 주일 - 오전 9:00 702 S. New Rd. Absecon 609) 641-7208
성 요셉 (Demarest-NJ) 토 - 오후 5:00(영), 8:00 주일 - 오전 8:30, 9:30(영), 11:00 오후 12:30(영) 573 Piermont Rd. 201) 767-3115	이턴타운 (Eatontown-NJ) 주일 - 오전 7:30, 11:00, 오후 12:30(영/1,3주) 64 Broad St. 732) 389-3830	마돈나 (Fort Lee-NJ) 주일 - (소성당) 오전 8:30, 오후 1:10(고등부) (대성당) 오후 1:30, 8:00 340 Main St. 201) 803-7557	에디슨 (Edison-NJ) 토 - 오후 4:00(영) 주일 - 오전 9:00(영), 11:30(영), 오후 1:30 37 Plainfield Ave. 732) 572-0977	메이플우드 (Maplewood-NJ)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8:00, 10:00(주일학교·영), 11:30 280 Parker Ave. 973) 763-1170

가톨릭신문 광고안내

가톨릭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미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발전의 일환이며 선교에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본 당 행사 . 단 체 행사 . 축 하 광 고 . 상 업 광 고 . 알 림 광 고 . 도 서 광 고

다양한 광고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 원하시는 크기로 게재가 가능합니다.
예산에 맞춘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장, 단기 광고가 가능합니다.
무료 아트웍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디자인 비용 지출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전화 323.735.0505 팩스 323.735.2496 이메일 infousa@catimes.kr



읽다 보면 스며드는 영적 고요... “책으로 피정 떠나요”



본격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심신이 지쳐가는 요즘, 일상을 탈탈 털고 떠나고 싶지만 아직 휴가철은 조금 남았다. 그렇다면 기도와 묵상을 이끌어주는 책을 통해 영적인 침표를 찍어보면 어떨까. 피정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할 신간들을 소개한다.

많은 신자들이 사랑하는 기도,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예수의 전생애를 묵상하고 체험하도록 이끄는 기도지만, 그 참맛을 느끼기란 쉽지 않다. 『**묵주기도 묵상**』(김보록 지음/232쪽/1만원/생활서서) 개정판은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통해 마음속 평화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얻도록 이끄는 지침서다.

책은 1985년 출판돼 4번의 판해를 거쳐며 신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판은 본문에 그동안 새롭게 바뀐 성경과 교회 문헌, 새롭게 개정된 전례문을 적용시키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서체와 디자인으로 읽기 좋게 구성했다. 책은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통해 4가지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삶을 내면으로 체험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수 생애 체험 이끄는 묵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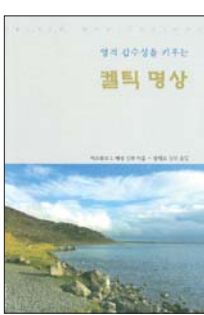
의미·맥락 알수록 공감 깊어지는

전례시편과 바오로 사도의 기도

하느님 숨결 느낄 수 있는 명상도

교회의 정통 영성수행을 따르고 싶다면 ‘성경 속 기도서’인 시편으로 기도해보면 어떨까. 『**시편: 묵상과 기도**』(그레고리 J. 폴먼 지음/612쪽/2만5000원/분도출판사)는 성부 일도 중 바치는 전례시편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시편으로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책은 미국교회의 전례시편인 ‘그레일 시편’의 개정판이다. 단순히 시편 본문만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편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초심자들도 각 시편의 표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성경학에 바탕을 둔 교양 지식을 전하면서도 지적 이해와 영적 공감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돼 있다. 성부일도를 바치면서도 그 의미를 묵상하지 못했던 이라면, 책을 통해서 예수도 여렸을 적 배웠을 그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의 시편에서 기도를 배웠다면, 신약에서는 바오로 사도에게 기도를 배워볼 수 있다. 『**로마서에서 기도를 배우다**』(임숙희 지음/256쪽/1만4000원/성서와함께)는 바오로의 편지인 로마서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오로’를 본받게 해준다.

바오로의 위대한 선교활동의 바탕에는 하느님과 인격적 친교를 나누는 지속적인 기도생활이 있었다. 책은 로마서 곳곳에서 바오로의 기도와 관련된 본문을 찾아 그 문맥과 신학을 살피고 해설한다. 그러나 이 해설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바오로의 기도내용과 기도자세를 깨닫고 성경에 바탕을 둔 기도생활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연과 사물, 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일상의 활동 하나하나에서 나는 하느님의 숨결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그런 영적 갈증이 있다면 『**영적 감수성을 키우는 켈틱 명상**』(에드워드 J. 패럴 신부 지음/양재오 신부 옮김/188쪽/1만2000원/파랑새미디어)를 통해 켈트 문화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낸 ‘켈틱 영성’으로 묵을 축여도 좋을 것이다.

책의 명상을 하나하나 따라다보면 일상에서 직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의식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와 손길과 생명의 기운을 체험하게 된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건축으로 읽어내는 수도원 영성

『묵상-건축가 승효상의 수도원 순례』
승효상 지음/520쪽/2만8000원/들배끼

로마에서 파리까지 수도원 순례기
건축가의 경험과 시선으로 담아
사진으로 현장감 더해 묵상 이끌어

“수도사들은 허용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수도원을 지었고, 이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이 되었다.”

건축가 루이스 헨리 설리번(Louis Henry Sullivan)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말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는 명제를 떠올리게 하는 이 말처럼, 건축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을 세우고 이용한 시대와 사람들의 정신을 꿰뚫고 있다. ‘빈자의 미학’을 추구하는 건축가 승효상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



스 파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도원을 순례하며 수도(修道)영성을 ‘수도원’이라는 건축에서 읽어낸다.

책은 승씨가 수도원 등의 건축물을 순례하며 사색한 기록을 담은 건축 여행 에세이다. 수도원을 순례하면서 과거 방문했던 여러 건축의 기억을 더해 건축과 영성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탐구해나간다.

승씨는 서울시 총괄 건축가를 지냈고, 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국내에서도 내로라하는 건축가다. 그동안 칼럼 등 짧은 글의 모음이나, 건축 작품집들을 출간해왔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낸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성』은 승씨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

다. 승씨는 이미 마산교구 명례성지를 비롯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하양교회, 사유원 등을 건축하며 ‘영성’의 지도를 그려나간 바 있다. 그 건축의 바탕에는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를 넘어서는 ‘영성’에 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수도원 순례에서의 묵상도 삶의 근원, 영성을 찾으려하는 그의 끈질긴 건축철학에서 발현된다.

승씨는 책에서 자신의 건축철학을 투영해 수도원 건축의 모습을 전한다. 순례 중 촬영한 사진과 자료들은 현장감에 생생함을 더해줄 뿐 아니라 승씨의 묵상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해준다. 수도원이라는 영성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그의 사유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물들어나간다.

책은 승씨의 끊임없는 자기고백과 성찰을 담았다. 승씨의 순례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질문은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질문은 모든 순례자들에게 순례의 길에 오르게 한 질문이요,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던져야 할 질문이다. “진리가 무엇이었?”(요한 18,38)

이승훈 기자

새 책

『아파하는 나에게』

루이지 마리아 에피코코 지음/이창욱 옮김/176쪽/1만2000원/바오로딸

하느님은 왜 외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는가. 인생의 혼란과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왔고, 찾아오고 있으며, 찾아오는 고통이다. 저자 에피코코 신부는 이 길에서 방황하는 ‘나를’ ‘엘마오로 가는 길’로 초대한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희망을 찾아 간 참혹한



사건이었고, 무력감과 허탈감을 안긴 충격이었다. 그러나 실망과 상처, 고통 속의 제자들 곁에는 부활한 예수가 있었다. 책은 제자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게임에 빠져 경계력 없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청소년, 치매 걸린 아내를 20년 동안 간병한 남편 등의 일화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스럽기만 한 일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해준다.

이승훈 기자

『거꾸로 자라는 나무』

피에르 세락 신부 지음/조연옥 옮김/140쪽/1만2000원/가톨릭출판사

사제품을 받은 후 오랜 세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과 한센병 환자, 수많은 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 피에르 세락 신부. 세락 신부는 우리가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고 성찰한다. 우리의 뿌리가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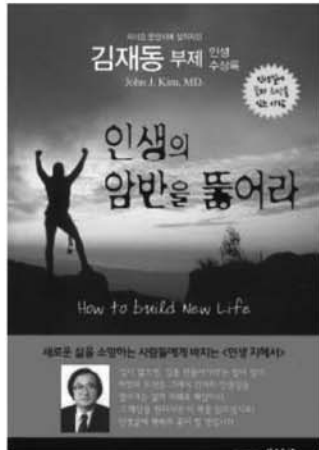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승훈 기자

성 마카엘 (Palisades Park-NJ) 토 - 오후 5:30(영) 주일 - 오전 8:00, 10:00, 오후 8:00 19 E. Central Blvd. 201) 944-1061	성 백삼위 (Saddle Brook-NJ)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8:00, 10:00, 12:00(학생) 오후 12:00, 12:00(주일학교) 585 Saddle River Rd. 201) 703-0002	프린스턴 한국 순교자 (Trenton-NJ) 주일 - 오후 12:30, 12:30(영/어린이) 1130 Brunswick Ave. 609) 695-6300	알바니 (Albany-NY) 주일 - 오전 10:00 17 Exchange St. 518) 925-0192	베이사이드 (Bayside-NY) 주일 - 오전 8:00(영), 9:15, 10:45(영), 오후 12:15(영) 5615 213th St. 718) 352-6979
성 남요한 (Bronx-NY) 주일 - 오전 8:00, 11:00, 오후 12:30(학생) 3663 White Plains Rd. 718) 231-2414	브루클린 (Brooklyn-NY) 토 - 오후 5:00(영), 9:00 주일 - 오전 9:00(영), 10:30 1712 45th St. 718) 436-5565	퀸즈 성 바오로 정하상 (Flushing-NY) 주일 - 오전 8:00, 9:30(영/학생), 11:00 오후 12:30(영/어린이), 6:00(청년) 32-15 Parsons Blvd. 718) 321-7676	그레이트 넥 (Great Neck-NY) 주일 - 오전 8:30, 오후 3:00(영) 592 Middle Neck Rd. 516) 466-8700	뉴욕 예수성심 (Hartsdale-NY) 주일 - 오후 4:00 10 Lawton Ave. 914) 949-0028

인생 길에 **꿈**과 **희망**을 심는 사람 김재동(요한) 종신부제의 인생 수상록



인생의 암반을 뚫어라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인생 지혜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가라’는 말이 있다.

희망과 도전은 그래서 각자의 인생길을

열어가는 삶의 지혜로 해답이다.

그 해답을 원하시면 이 책을 읽으십시오.

인생 삶에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인생살이는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뇌의 길입니다.

그러나 은총의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그 길을 인도합니다.

이해인 수녀 추천의 글

요즈음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또 책을 펴내지만 진정 영혼을 울리는 좋은 글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쩌다 가톨릭신문 미주판을 읽다 보면 제게는 김재동 부제님의 칼럼이 얼른 눈에 띄고 마음에 와 닿아 강의 중에도 여러 번 인용을 하곤 했습니다. ... 이 글모음집이 많은 독자들에게 기쁨으로 읽혀서 그들의 마음 한 자락이 더욱 환해지고 따뜻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책 구입 문의 : 가톨릭신문사 전화 323-735-0505 팩스 323-735-2496 / infousa@catimes.kr

●가격 : 각 15불(2권 30불) + USPS 배송료 별도(단체 주문시 배송료 저減)

※책 판매 수익금은 가톨릭신문 미션(신문 보내기)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선교하는 이는 모두 천사들이다

더 쉬운 믿음교리 해설

아는 만큼 보인다

27. 천사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8-336항)

1992년 ‘잭 켈러리’라는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길거리에서 전쟁과 기아에 죽어가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있었고 영양실조로 배가 볼록했습니다. 일행 중의 한 사진기자가 사과 하나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는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고맙다는 눈짓을 하고는 그 사과 반쪽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소년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동생에게 다가갑니다. 소년은 손에 쥐고 있던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그것을 씹어 동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의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음식

을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는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행이 난민캠프로 그 형제를 옮겼으나 며칠 뒤 형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형을 ‘천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천사’라는 말은 그 본성보다 하는 행동, 즉 ‘직무’에 더 무게를 둔 단어입니다.(329항 참조) 하느님은 분명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란 단어는 본래 ‘파견된 자’, 혹은 ‘전령’(messenger)이란 뜻입니다. 천사의 본성은 영(靈)이지만 그 소명의 수행 여부에 따라 천

사도 되고 마귀도 됩니다.

천사가 주로 수행하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파견자’이고 하느님을 직접 뵈을 수 없는 존재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되신 성자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이끈 요한 세례자의 역할이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갑을 들고 인간의 접근으로부터 막기도 하였습니다.(창세 3.24 참조) 하지만 이는 생명나무를 죄지은 인간이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임무였습니다. 라파엘 천사는 토비아의 여행 동안 항상 동행하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고(토빗기 참조), 하느님의 두 천사는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롯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창세 19장 참조) 모세도 천사의 역할을 한 것인데, 하느님은 모



로기에르 반 데르 베이덴의 주님 탄생 예고.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느님의 파견자이다.

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나라로 이끌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

습니다.(탈출 23.20 참조)

하느님은 이처럼 인간들을 당신께 이끌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인간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층계를 보았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창세 28.12 참조) 천사는 이렇게 하느님이 사시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을 이어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위의 예에서 기자들이 소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소년의 동생은 죽었을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지 못하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천사 중의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의 인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세계의 중심이십니다”(331항)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로부터 파견 받으시어 당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십니다.(요한 10장 참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7 참조)라고 하시며 당신 천사의 직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하느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사도 6.15)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천사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마귀라면 하나로 이어주는 이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역할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된 이들”(331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구원을 위해 교회로부터 파견 받는 귀한 천사들입니다.

전영성 신부
수원교구 영성관·영성수행개발팀과 교수



농어촌은 생명의 장...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필요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세상의 빛

27. 공익(公益)과 생명의 상징인 농촌

(『간추린 사회교리』 299항)

마리아: 신부님, 저번에 농활을 갔는데, 분당 청년들이 다들 너무 소중한 체험을 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신부: 오, 그랬군요, 마리아! 마리아: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들 연세도 많고도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예능프로 보면 농촌 생활이 힐링하고 쉬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신부: 맞아요, 우리 나라는 농어촌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마리아: 저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어요.

■ 농가의 현주소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농수산업은 국가 근간산업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시장개방,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은 연평균 2.8%의 꾸준한 성

장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이뤘고 2015년 한국의 농업과학기술은 세계 5위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바이오농업과 유전자기술 등 기술집약 농업은 더욱 발전해 갈 것이며,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업은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뉴농업 프로젝트’, ‘도농협동 국민운동’, ‘도농 간 업무협약’ 등 도농개발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농가의 현재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많은 농가는 실질소득의 감소, 소득격차의 확산과 불평등, 빈곤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지난 2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제농업개발기금 관리 이사회 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농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심각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이 생명의 장이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원주교구 대안리 공소 밭에서 생명 농산물을 가꾸고 있는 농민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 불평등 심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과 2016년 사이 국내 농가의 상위 20%가했습니다. 도시가 5.7배인 것에 비하면 매우 큰 차이입니다. 주된 이유는 고령화와 영세농가의 경쟁력 하락, 소농사회 붕괴입니다. 도시보다 고령화율이 3

배 가까이 높은 농어촌은 60대 농가의 72%, 70대 농가의 97%가 생계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낮은 의료접근성, 국가 기반시설의 부재 등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휴식과 충전의 장소로 농촌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송물은 농가의 실질적인 현실과

는 거리가 멉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등지에서 여가,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실제로 도시농업인구가 지난 10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도시농업 인구를 2022년까지 약 400만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도시농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농촌이 여전히 배제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 농촌에 대한 진정한 관심

노벨상 수상자, 사이먼 쿡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 발전할 수 있지만 튼튼한 농업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의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맥락은 농업이 갖는 공익성입니다. 사실 농업은 단순히 식량공급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좁은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도 관련되며, 자연환경과 녹지, 생태계 및 수자원을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패적인 자연과 생명체계의 장을 제공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총체이며 생명과 삶의 문제라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농어촌이 생명의 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처럼 도시 중심의 발전은 발전이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농촌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위정자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생태적 화성, 농업은 생명이라는 우리의 인식 변화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의 경제 체계에서 농업이 당당해 왔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 점점 더 세계화되어 가는 경제 상황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 증대를 고려할 때, 농업 노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299항)

이우형 신부
서울교구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드사이드 (Long Island City-NY) 주일 - 오전 9:45 35-20 Greenpoint Ave. 718) 729-2220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NY) 토 - 오후 6:00(청년/2주도요일) 주일 - 오전 9:15 135 W 31st St 212) 736-8500	스테튼 아일랜드 (Staten Island-NY)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11:00 76 Jackson St. 718) 273-3311	락클랜드 (Stony Point-NY) 주일 - 오전 9:30, 10:00(학생) 180 Filors Ln. 845) 947-1504	버팔로 성 김대건 (Tonawanda-NY) 주일 - 오전 11:00 9 O'hara rd. 716) 693-1600
롱 아일랜드 (Woodbury-NY)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9:30(미자막 주 없음), 오후 12:00 690 Woodbury Rd. 516)921-3333	필라델피아 (Philadelphia-PA)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7:00, 10:00, 11:30(주일학교) 오후 5:00(청년) 7000 Old York Rd. 215) 927-1662	윌밍턴 성 스테파노 한인공동체 (Wilmington, DE) 주일 - 오전 11:00 2710-2712 Duncan Rd. 302) 998-7609	필라델피아 성모 마리아 (PA)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10:30 100 Media Line Rd. 610) 259-2240	로드 아일랜드 (Providence-RI) 토 - 오후 5:00(영) 주일 - 오전 10:00(1주/이중언어), 오후 12:00(2-5주/한) 538 Broadway 401) 757-0522

가톨릭신문 미주지사

• 도서 세일 •



- 도서에 따라 조기 품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배송료는 별도입니다.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Check / Credit Card로 구매 가능합니다.
(Check Payable to: The Catholic Times)

수상, 목상집, 에세이

제목

인생의 암반을 뚫어라
아프니까 인생이다
아! 비엔나
어머니 내가 만난 우리 어머니
아픔의 향기가 되어
나의 기행문 - 미 대륙 횡단기
팔진복
가톨릭 신앙의 재발견

신앙 서적

제목

존경하는 김 선생님 -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자

김재동 부제
김재동 부제
김정우 신부
리사리 레지나
리사리 레지나
정광영 신부
이원목 에우제니오
Matthew Kelly 지음
양승현 요한 옮김

저자

엄무광
차동엽 신부 외

내용

인생수상록
인생수상록
사목수상록
신앙고백록
에세이
기행문
신앙수필집
영적 지침서
NY Times 베스트 셀러

내용

영성운동

가격

15
15
10
5
5
10
10
10

가격

10
10

주문처: 가톨릭신문 미주지사 전화 323-735-0505 팩스 323-735-2496 이메일 ctimesusa@gmail.com

The Catholic Times 15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5.0505 Fax. 323.735.2496 Email. ctimesusa@gmail.com

하느님 안에서 기쁨 되찾기

/ 질문 /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가요?” 현대 사회에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가요? 주변에 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지금 사회에서는 오히려 못난 모습에 때버린 걸까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라 하셨지요

/ 답변 / 요즘은 자기 피알(PR) 시대라고 합니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로서 ‘대중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홍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신을 타인에게 홍보해 대중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PR은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나 필요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PR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한 사실이나 과장된 것들을 드러내다 보면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라도 ‘자기 이해’가 우선 잘 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자기 이해를 잘하고 있을수록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수양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무한경쟁 시대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



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이란 미덕은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장애물쯤으로 여기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해서라도 뒷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경쟁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덕목은 정말로 쓸모없는 것일까요?

겸손은 ‘인간이 자기 처지 이상으로 높이는 오만도, 그 이하로 낮추는 비굴도 아니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겸손을 다섯 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는 우리가 가난과 비천함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2단계는 비천한 자기를 인정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무가치

함과 비천함을 알아보았을 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멸시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가 우리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경멸당하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고 받으려고 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살레시오 성인이 말씀하신 겸손의 5단계까지 도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해지려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루카복음 14장 1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남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얻어지는 기회가 얼마만큼 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뤄질 일들을 스스로 만들려다가 도리어 주님의 뜻만 거스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금은보화는 원래 낮은 데 묻혀 있는 법이고, 물은 낮은 골짜기를 흐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분들에게는 매우 엄격하시며, 겸손한 분들에게는 한없이 퍼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고,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어느 순간 교만해지는 우리를 더 살피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느님이 노하실까 정말로 두렵습니다. 의로운 사람 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황마구 원장

(상담심리전문가)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장



※ 질문 보내실 곳 : (우편) 049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7길 11, 7층 (E-mail) sangdam@catimes.kr

이 말이 궁금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Charisma)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같은 말 은사(恩賜).

카리스마라는 말은 신자가 아닌 이라도 자주 들어봤을 법하다.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다”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매력이나 자질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은사’, ‘무상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말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아우른다. 교회는 좁은 의미로 성령의 은사를 일컫는 말로 사용해왔다.



성령, 미국 오하이오주 핀들레이시 성 마카렐대천사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카리스마라는 말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우리 안에 살아 활동하는 성령의 현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됐다. 바오로 사도는 “카리스마(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요,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라며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고 강조했다.(1코린 12:6-11)

교회 밖에서의 ‘카리스마’는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사실 카리스마는 모든 신자들이 이미 받았다. 성령은 카리스마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며”(1코린 12:11)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준다.(교회헌장 12항)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카리스마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카리스마의 식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카리스마가 더 가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카리스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카리스마를 활용해 사랑을 실천하였는지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특별한 것이거나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거나, 카리스마(은사)는 성령의 은총이며 직접 간접으로 교회에 유익이 된다”며 “카리스마(은사)는 교회의 건설과 인류의 선익과 세상의 필요를 위한 것”(가톨릭 교회 교리서 799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세상살이 신앙살이 (492)

본당 사목을 할 때입니다. 그 해에는 4월 달에 사순시기와 성주간, 성삼일과 부활절, 이어서 5월달에 ‘본당의 날’과 ‘성모님의 밤’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마음속으로 ‘적진아, 행사 치르느라 힘들었지!’하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당 내 숨은 봉사자들의 노고가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며 본당에서 헌신, 수고, 봉사에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 공동체는 계속 성장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당 전교 수녀님과 수고

해 주신 몇몇 분들을 모시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바람도 쐬고,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 습니다. 함께 가시는 분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움과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런데 내 수준에서 계획이라고 해 봤자, ‘인천 국제공항’ 근처 바닷가 선착장에서 배 타고 섬에 들어간 후, 그 섬을 차로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한 뒤에, 식당에서 조개구이와 칼국수를 먹은 다음,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 멋진 계획이라 생각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함께 가는 일행분들 사이에서는 출발 전일까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교 수녀님에게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떤 것을 먹는지’ 계속 물

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교 수녀님 역시, 아무것도 모르기에!

그다음 날, 몇몇 분이 차려입은 복장을 통해 작은 난리가 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분들의 패션이 조금 독특했고,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데, 옷은 조금 정장 비슷한 것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분들 생각에 주임 신부님이 경양식집을 데리고 가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았고, 야외로 간다면 좀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운동화를 신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의 마음, 특히 여성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을 정도로 후회했습니다. 다녀와서 후회하기를 ‘미리 그분들께 서울 근교의 바닷가를 간다고 말씀드렸다면, 더 편안

하고 자연스러운 차림하고 오셨을 텐데!’ 나, 아무것도 모르기에!

그날, 그날, 전교 수녀님과 일행분들을 모시고 내 머릿속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았고, 차 안에서 함께 나눌 수 다 또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차가 서서히 ‘인천 국제공항’ 도로를 달리자, 자매님 중 한 분이 ‘우리도

국에 나가는 건가요?’ 하며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공항 근처 바닷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섬으로 가는 선착장 차량 대기 줄에 섰습니다. 그 섬으로 들어가는 배 앞에, 몇 대의 차는 이미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여객 터미널 직원이 오더니, ‘어느

섬에 갈거냐, 몇 시 배를 탈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11시 배를 탈 것이라 말하자, 직원분은 일행분들의 신분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해맑은 미소로 뒤돌아보며 말하기를,

“각자 신분증 좀 주세요!” 그러자 뒤에서 들리는 한 마디! “아이고, 신분증요? 오늘, 신분증 안 가져왔는데, 신분증 가져오라는 말은 없었잖아!”

아뿔새! 일행 중에 두 분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직원분의 차가운 한 마디! “신분증 없으면 배 못 타십니다.” 그 순간...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강석진 신부(한국순교복자성직수교회)

체리힐 (Cherry Hill, NJ) 주일 - 17:00, 화요일 - 20:00 목요일 - 12:00 웹사이트 chkc.org 2001 Springdale Rd. 856 912-1355	동등부 지역 (DC, MD, PA(S), VA)	한국 순교자(Baltimore-MD)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7:30, 10:30, 오후 12:00(영/어린이) 5801 Security Blvd. 410) 265-8885	워싱턴 (Olney-MD) 토 - 오후 7:30(2주 6:00) 주일 - 오전 7:00, 9:00, 10:30(교중)(학생 오후 5:00(청년) 17615 Old Baltimore Rd. 301) 260-1981	성 손선지 베드로 (Harrisburg-PA) 주일 - 오전 10:00 571 Valley Rd. Enola 717) 732-1220
피츠버그 성 김대건 (Sharpsburg-PA) 주일 - 오전 11:00 623 High St. 412) 478-1520	성 정 바오로 (Arlington-VA)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8:00, 10:00, 11:40(영/학생) 오후 3:00(우드브리지), 5:00(청년) 4712 Rippling Pond Dr. 703) 968-3010	성 로사와 한인 순교자 (Hampton-VA) 토 - 오후 5:00(영) 주일 - 오전 8:30(영), 11:30 2114 Bay Ave. 757) 245-5513	리치몬드 성 김대건 (Richmond-VA) 주일 - 오전 10:30 31100 Logandale Ave. 804) 232-0995	주님 공현 (Washington D.C.) 토 - 오후 5:00(영) 주일 - 오전 7:30(영), 9:00, 10:30(영) 2712 Dumbarton St. NW 301) 337-0354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현재 1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선교회입니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THE 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



이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선교사로서
일생을 걸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선교는 신앙의 꽃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셔서 함께 선교의 향기를 피워보십시오.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됩니다.

문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 및 후원회

전화: (323) 605-2606

이메일: sscmissioncenter@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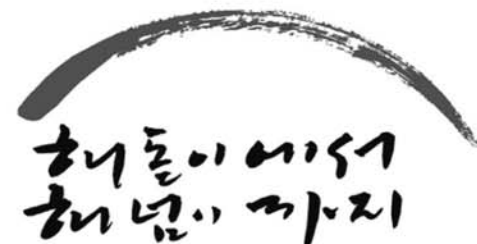
주소: 4032 Wilshire Blvd
#407, LA, CA 90010

한국지부 홈페이지 www.columban.or.kr

미국지부 홈페이지 www.columban.org



한국외방선교회
Korean Missionary Society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 15)



신앙강좌와 미사를 포함한 정기 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6:30pm-8:30pm
New Jersey 카톨릭센터에서 열립니다.

체크후원 > Pay to the order of : KMS,USA

홈페이지 www.kms75.or.kr

한국외방선교회 미주후원회 사무실

New Jersey 카톨릭센터 201호

110W.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담당 김상균 다니엘 신부 (917-587-8747)

아시아 복음화, 미래교회의 희망

가톨릭신문·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공동기획⑥
일본교회는 왜 복음적 활력이 없어 보일까?

천황제와 국가 종교화 앞에 그리스도교는 설 자리 없었다

보편교회에 대한 신화?

동아시아에서 복음화 성공의 상징은 한국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교회 복음화의 성공여부를 한국이라는 특정 지역의 관점에서 비교평가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교회가 동아시아의 예루살렘(?) 자리를 차지한 이유는 교회 외부의 여러 가지 사회요인에 기인한 것이 크다. 단순히 한국의 신자들이 열심히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교회적 번영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한·중·일은 문화적 동질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지만, 19세기 후반 이후 각 국가 사회의 고유한 경로를 통해 근대국가로 발전하였고, 그 맥락 속에 교회의 운명도 결정되어 지금과 같이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개개의 교회들은 나름의 고유한 모습과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특정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에 대해

자수의 증가가 정체된 것은 한국교회처럼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일본교회 역시 그리스도 공동체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줄 뿐 좌절된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교회가 왜 종교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신자수가 정체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까.

종교화된 민족주의와 그리스도교-서구의 갈등

일본은 17세기 초 에도시대가 시작되면서 천주교를 금지했다.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면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온 사회의 소수 집단인 듯 보인다. 신자수는 인구의 0.3%(45만 명) 정도를 유지하며 100년간 신자수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인사제와 수도자도 적고, 각종 신심단체는 활성화 되



1869년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숨어들었다고 전해지는 고토 지역 '키리시탄의 동굴'. 동굴 입구에 세워진 그리스도상은 신앙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1968년 설치됐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에도시대 때 가톨릭 금지… 당시 지도층들 외세에 위협 느껴
20세기 민족주의 대두하며 국가 신도 의례를 애국으로 간주

보편적 준거의 자리를 누릴 수는 없다.

하느님 나라는 완전하고 보편적 성격을 가졌지만 지상의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 없다. 즉 우리가 보편교회라는 말을 할 때 그 뜻은 기준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일치와 동질성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일본을 비롯한 지역교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교회'의 이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늘 지역 속에서만 존재해 왔다. 보편교회는 바티칸에 있는 행정부서, 성당들, 고위관료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처럼 외형적으로 성공하고 힘있는 교회도 아니다. 굳이 보편교회를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교를 이루는 고유한 지역교회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다른 여타의 종교든 '순수한 초문화적 실재'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특수한 문화적 표현과 실재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교회도 한때 그 지역의 외래 종교였다. 일본교회가 종교성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신

지 못하고, 전례와 교회적 생활양식도 로마 표준에서 볼 때 다소 이완 돼 있는 듯 하며 적극적인 신자선교와 교회문화화 사회에 알리는 데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1549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를 통해 들어온 것을 일본교회의 시작으로 본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무역을 매개로 하면서 영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외세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던 일본의 지도층은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를 국가의 질서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교회의 선교적 변영은 채 100년이 못가고 두 세기에 걸쳐 잠복하게 되었다. 에도시대를 거치며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교는 곧 외세의 심각한 일탈이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각인되었다.

이후 19세기 이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를 포괄하여 무려 200개가 넘는 외국 선교 조직들이 경쟁적으로 입국하여 교회를 세워 일본의 신자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안정되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신도(神道)에 기

초하여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 성장은 멈추게 되었다.

20세기 초 제국이 된 일본은 국가의 문화적 통제와 함께 자기 폐쇄적인 모습을 보인다. 메이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종교화된 천황과 국가를 경신례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국민과 종교인들에게 의례를 강요하였다.

일본 정부는 신도를 국가의 '비종교적 제도'로 정의하고 국가 신도의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 없이 일본인의 애국적 의무로 간주하였다. 그리스도교와 일본 사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의구심을 품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교단들은 일본사민들로부터 타자화 되고 배제되었다. 1939년 의회는 정부에 권한을 주어 어떤 종교단체든 제국의 길과 함께하지 않으면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1939년 종교단체법이 발효됨에 따라 교회는 공식적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교육부가 제정한 일련의 조건을 따라야만 했으며, 종교화된 국가와 민족 앞에 외래의 종교는 그 정체성

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편 전쟁 후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국가 신도를 해체한다는 칙령(1945년 12월 15일)을 발표했다. 신도에 특별한 법적지위와 재정적 지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신도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 단체는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여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1947년 공표된 헌법 제20조와 제89조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와 국가 간 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 신도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종교의 자유시장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동아시아 교회의 발전과 관련된 운명이 갈리게 된다. 서구세력을 상징하는 그리스도교를 일본과 한국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에게 서구-그리스도교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해방자로서의 이미지였다면, 일본에게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꾀는

정령군이었다. 한국에게 극복해야 할 외세는 일본이었지만, 일본과 중국에게는 서양이 그러한 존재였다. 즉, 전후 근대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서구-그리스도교 문화가 한국에서는 사회발전의 중요한 친구로 받아들여졌다면, 중국과 일본에서는 구중화(중국)와 신중화(일본)의 영광과 자존심을 밝은 원수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교회는 교육과 복지 영역을 넘어 지역운동(육아, 먹거리, 자원활동)과 소수자와 사회정의의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종교성을 직접적으로 알리고 신자수를 늘리기 보다 복음의 기쁨과 진정성을 생활현장과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드러나 감추어 증거하고 있다.

최영균 신부



(수원교구 호계동본당 주임,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동남부 지역 (AL, FL, GA, NC, SC, TN)	황석두 루가 (Birmingham-AL) 주일 - 오전 10:00 759 Valley St. 205) 823-2301	헌츠빌 (Huntsville-AL) 주일 - 오후 4:00 128 Westbury Dr. 256) 278-4638	성 감대건 안드레아 (Montgomery-AL) 주일 - 오전 11:00 433 Clayton St. 334) 262-3241	성 정하상 바오로 (Miami-FL) 주일 - 오전 10:00, 오후 7:00 3600 S.W. 32nd Blvd. 954) 474-9091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Jacksonville-FL) 토 - 오후 7:00(제인즈빌) 주일 - 오전 10:30 8051 Rampart Rd. 904) 573-1833	성 김제준 이나시오 (Orlando-FL) 토 - 오후 8:00 주일 - 오전 10:00 1518 East Muriel St. 407) 895-8858	탬파 (Tampa-FL) 주일 - 오전 8:00(소성당), 9:20(대성당) 6400 E. Chelsea St. 813) 626-7588	에틀란타 한국 순교자 (Doraville-GA) 토 - 오후 7:00 주일 - 오전 8:30, 10:30, 오후 12:15(영) 6003 Buford Hwy. NE 770) 455-1380	에틀란타 성 감대건 (Duluth-GA) 토 - 오후 7:00 주일 - 오전 8:00, 10:00, 11:45(영) 2249 Duluth Hwy. 770) 622-2577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

REGION OF AMERICAS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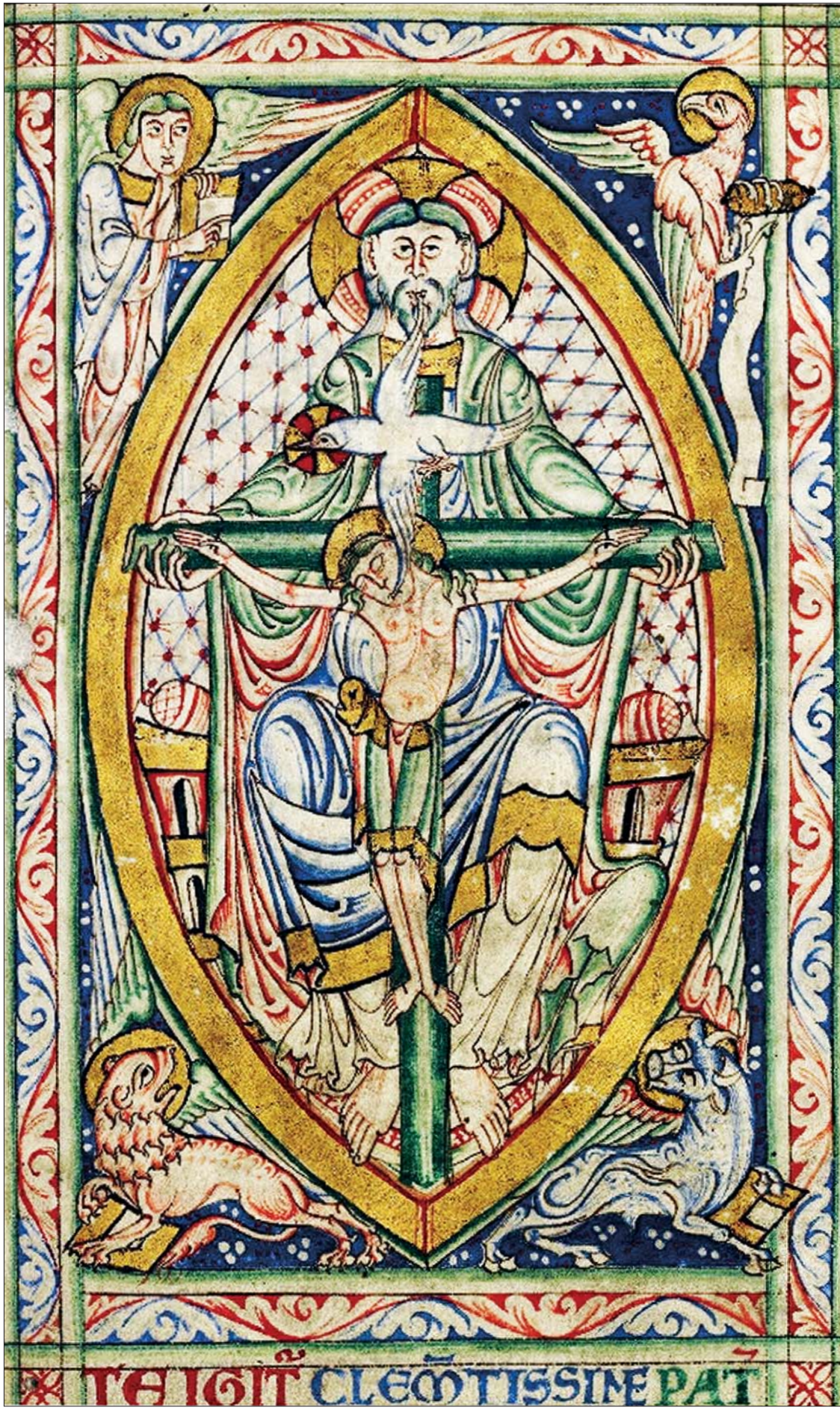
우리 수녀회 미주지부는 . . .
LA에 지부원이 소재해 있고
멕시코시티에 수련소(양성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페루에서 사도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순교자 영성센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외부회(제3회) : 주일반, 주중반
- 라틴아메리카 선교후원회
- 면형무아 성경공부
- 면형무아 독서모임
- 영혼의 빛 영성모임
- 단체 피정(40명 미만)
- 청년 성경공부(한국어)
- 수도성소 모임

주소 :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문의 : 562-461-8100 / 562-714-7769

성부는 연로하신 분, 성령은 비둘기 모습으로 상상



‘은총의 옥좌-캄브레 미사경본’, 12세기경, 채색 필사본, 프랑스 캄브레 시립도서관.

성화로 만난 하느님 (14)

‘삼위일체 하느님의 형상’

수 세기 동안 화가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그렸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과 알레고리의 비유적 치환에 기초해 형상화에 왔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의 중 하나인 ‘삼위일체’도 화가들에게는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位格)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힘든 과제였다.

흰 수염 노인으로 성부 그려

영원으로부터 존재함 묘사

성부 입으로부터 나온 성령

예수와 연결돼 함께 활동 상징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은 인간적인 묘사가 가능했지만, 하느님을 묘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성경에도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하느님을 눈으로 보는 어떤 형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화가들은 하느님을 삼각형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손, 굽어보는 눈으로 표현하곤 했다. 그 다음에는 구약에 나오는 마르레의 참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의 모습으로부터(창세 18.1) 하느님의 가시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형상화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의 도상은 하나의 고정된 규범적 모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나타났다. 보통 화가들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같은 모습을 한 세 사람(혹은 똑같은 천사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성부를 ‘연로하신 분’(다니 7.9)으로 나타내 영원하신 분임을 드러내거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 등으로 제작했다. 12세기 경 제작된

캄브레(Cambrai)의 미사경본 채색 필사본(彩色筆寫本, 삽화가 들어간 필사본)에는 처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떠받치고 있는 성부 하느님의 모습이 등장한다. 신성한 하늘과 빛 그리고 영광을 의미하는 커다란 만돌라(Mandola)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위로 비둘기 모양을 한 성령과 노인의 모습을 한 성부가 수직을 이루며 배열돼 있다.

성부 하느님은 화려한 옥좌에 앉아 양팔을 벌려 십자가 위 예수를 떠받치고 있다. 성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세상에 파견한 분으로, 영원으로부터 스스로 존재한다. 따라서 성부가 흰 수염이 달린 노인으로 묘사된 것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함을 상징한다.

성부 하느님 앞에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은 그의 양쪽 날개 끝으로 성부의 입과 예수의 입을 연결하고 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고유한 형태가 아닌 무정형의 단어로, 바람(風), 숨, 임김(氣息)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Ruah)로 사용된다.

채색 필사본의 화가는 성령을 비둘기 이미지로 표현했다. 성부의 입에서 나오는 숨(임김)의 이미지로 성령을 나타낸 것이다. 성령은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기운이다. 비록 지금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께서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는 성부께 부여받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행한 업적과 가르침, 즉 예수의 전 생애는 성령이 함께 활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성부가 걸친 옷 색은 예수와 같은 것과 동일하며 커다란 녹색 십자가 또한 성부와 예수를 연결하고 있다. 녹색은 영적 재생을 의미하는 색이다. 녹색 십자가는 예수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성부께 자신의 영을 맡기고 힘과 위로의 원천인 성부는 예수를 사랑의 손으로 받쳐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사본 아래는 ‘그러므로, 인자하신 아버지’(Te igitur, clementissime Pater)라고 적혀 있다. 이 필사본이 미사경본의 어느 부분인가를 알 수 있는 글이다. 이것은 미사의 성찬례 중 감사기도 시작 부분으로 사제는 계속해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 강복하소서”라고 이어간다. 이후 성령을 통해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성부(노인)와 성자(십자가 상 사람)와 성령(비둘기)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거룩한 공간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네 복음서의 상징과 십자가 위에 있는 어린양’, 11세기, 상아, 23.5x13.7x0.9cm,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옥좌를 에워싼 네 생물의 형상

화면의 사각 모서리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예제 1.5)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간인 만돌라를 에워싸고 있다. 요한 묵시록에 따르면 네 생물이 가장 높은 옥좌를 에워싸고 있다고 한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묵시 4.7) 사자, 사자, 황소, 독수리는 그리스도교에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를 상징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상아 부조로 만들어진, 네 복음서를 상징하는 생물들은 십자가의 교차점에 자리한 ‘하느님의 어린양’인 예수를 에워싸고 있다.

마태오복음서는 인간 삶의 여정인 죽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마르코복음서는 요한 세례자의 광야 설교로 시작하기에 광야의 왕 사자로, 루카복음서는 사제 즈카르야가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기에 황소로 나타낸다.

또 요한복음서의 신학이 날카롭고 깊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서는 독수리로 표상된다. 독수리만이 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윤인복 교수

(여기 예수의 대리사-인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교수)



성 정하상 바오로 (Raleigh-NC) 토 - 오후 5:00(청소년) 주일 - 오전 10:30 3031 Holland Rd. Apex 919) 363-0408	성 이윤일 요한 (Charlotte-NC) 주일 - 오전 10:30 7109 Robinson Church Rd. 704) 531-8417	성 안드레아 김대건 (Fayetteville-NC) 주일 - 오전 11:00 1401 Valencia Dr. 910) 630-2316	성 유대철 베드로 (Greensboro-NC) 주일 - 오전 10:30 4112 Romaine St. 336) 624-6424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Memphis-TN) 주일 - 오전 10:30(소성전) 8185 Poplar Ave. 901) 743-4551
내쉬빌 한국 순교자 (Nashville-TN) 주일 - 오전 10:30 2139 Lebanon Pike 615) 554-1123	태평양 지역	하와이 (Hawaii) 솔렉(3300 Ala Lualani St.) 토 - 오후 7:00 마노아(2940 Kalia Ave.) 주일 - 오전 6:30, 11:30, 오후 3:00(청소년) 808) 888 - 6824	사이판 (Saipan) 토 - 오후 4:00(특전/주일학교) 주일 - 오전 10:30 670) 235-1149	괌 (Guam) 토 - 오후 7:30 주일 - 오전 10:30 671) 637-4148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

MISSIONARY SISTERS OF THE HOLY MARTYRS

순교자들의 선교 수녀회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신앙을 증거하신
순교자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복음 말씀을
실천 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창립된 국제활동 수도회입니다.

선교지 카페 : www.facebook.com/potoichan
www.cafe.daum.net/potoichan

성소 및 후원회 문의: 담당수녀 (661) 565-4817
Mobile:

email: ptrham@hanmail.net

미국 본원 주소:
MISSIONARY SISTERS OF THE HOLY MARTYRS
6722 Hwy138 Phelan, CA 92371

모 원 『멕시코』
HERMANAS MISIONERAS DEL LOS SANTOS MARTIRES
Potoichan (Copanatoyac)
Obispado anexo a Catedral Esquina calle Galvez Col. Centro
C.P. 41304 Tlapa de Comonfort Guerrero, MEXICO
Tel : 52-757- : 488-5351

(루카 4,18)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혐오표현 피해자는 배제된 이들… 교회가 차별 막아야”

가톨릭신문이

만남 사람

‘혐오표현’ 연구하는
홍성수 교수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혐오가 넘치고 있다. 혐오표현은 더 이상 어느 한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중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혐오표현은 ‘말’을 ‘칼’로 바꾼다. 혐오는 사회 전체에 소외된 이들, 약자에 대한 편견을 전파하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혐오범죄’라는 직접적이고 끔찍한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혐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성수(토마스 아퀴나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혐오표현을 주제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펴낸 「말이 칼이 될 때」가 대중들에게 꾸준히 공감을 얻고 있다. 홍교수를 만나 한국사회의 혐오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해 듣고 변화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대담: 최용택 취재2팀장 날짜: 2019년 6월 27일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홍성수 교수 연구실

-최용택 팀장(이하 최 팀장): 제작년 발간한 책 「말이 칼이 될 때」가 우리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계기로 혐오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홍성수 교수(이하 홍 교수):** 혐오표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한계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럽에서 이미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연구하던 중 우리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이 이슈가 되기 시작해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최 팀장: 언제부터가 우리 일상에서 ‘맘충’, ‘남혐’, ‘여혐’, ‘극혐’, ‘김치녀’ 등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한 모욕적 의미를 담은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일까요. 우리사회에서 이런 혐오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 교수:** 사실 혐오표현은 예전부터 있던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서 노골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와 맞서 싸우기보다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만들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인터넷과 미디어 환경의 영향으로 혐오나 차별을 담은 표현들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팀장: 이런 혐오표현은 듣는 이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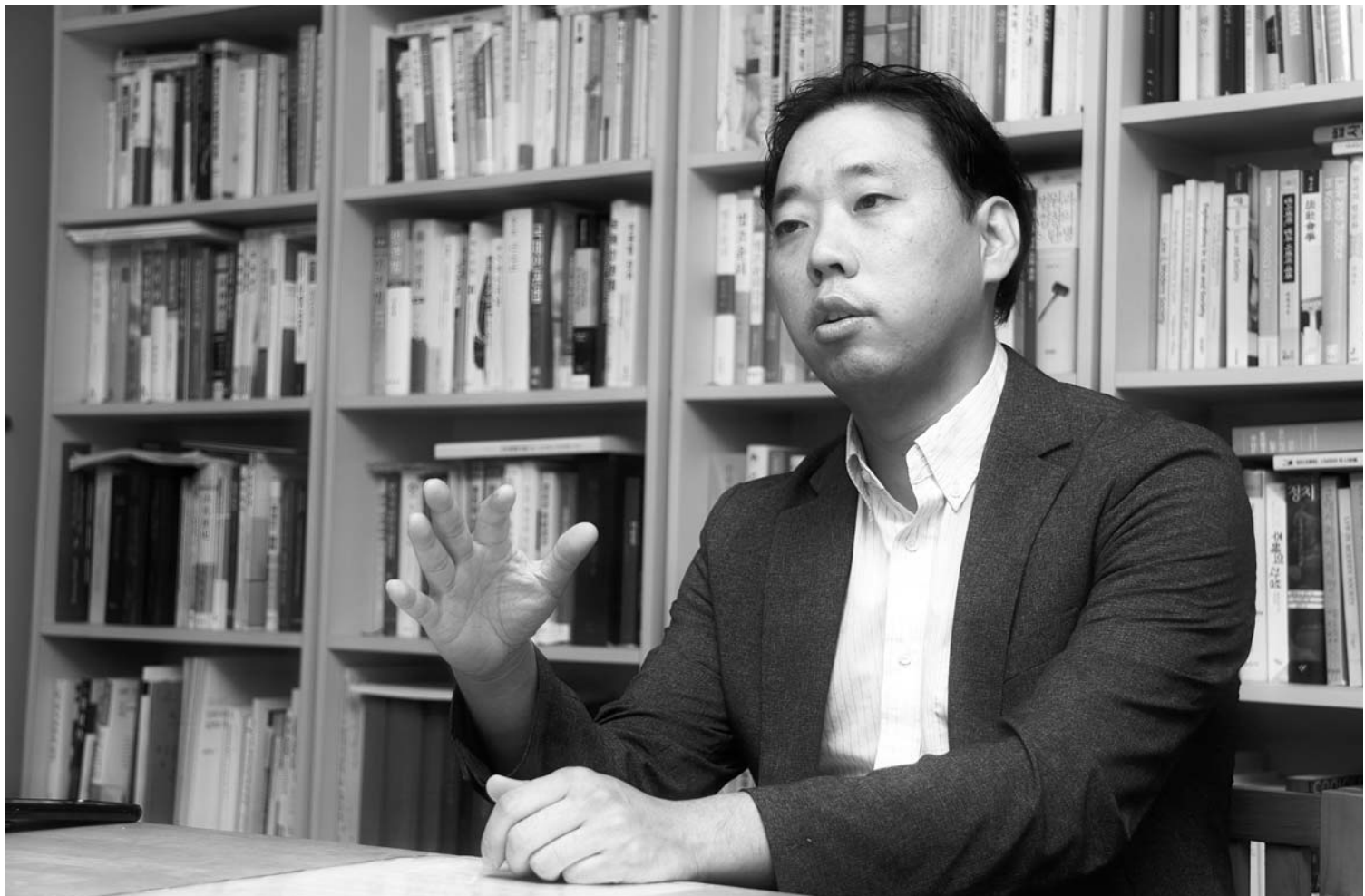
소수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는 말입니다. 혐오표현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홍 교수:**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수자들에게는 인격훼손과 정신적 손상을 주는 일입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혐오표현이 단순한 표현이라기엔 사회적 영향이 크고 사회에 직접적인 해악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대부분 이미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사회가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단인데, 혐오표현이 난무하다보면 ‘차별해도 되는 것 아닐까’,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닐까’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차별이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장애인,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가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 팀장: 교수님께서선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혐오표현의 문제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 교수:** 교회의 정신은 사랑과 포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도 늘 더 어려운 사람과 가까이하고 사회에서 소외·배제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혐오와 차별에 가장 민감해야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홍성수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며 “교회가 혐오와 차별에 가장 민감해야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혐오표현은 ‘말을 칼로 바꾸는 폭력’ 약자에 책임 넘기고 희생양 삼는 것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랑과 포용으로 먼저 손 내밀어야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난민이 화제가 됐을 때 제주교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중요한 사례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던질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손을 내민 것은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보여주었지요.

이미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에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는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또 교회가 누구나 환대하는 열린 곳이고, 교회 안에서 만큼은 차별이 없다면 혐오와 차별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 팀장: 혐오표현은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데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과연 차별금지법이 이런 차별과 배제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홍 교수:** 헌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지만, 현재 그 내용이 구체화된 법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금지돼 있다는 공식적 선언이라는 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혐오표현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차별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반감표현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불이익을 줬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법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을 막는 최소한의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 팀장: 혐오표현을 막아내는데 있어서 언론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홍 교수:** 언론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혐오는 노골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 자체가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

렵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범죄 보도를 예로 들면, 그 기사 내용은 사실을 말하고 있겠지만, 정신장애자는 잠재적 범죄자이며 위험하고 감금할 필요가 있다고 여론을 몰고 가는 등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차별이나 혐오가 조장되는 않을까에 관해서 몇 배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 팀장: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 교수:**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혐오·차별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늘 사랑과 포용으로 차별받고 배제된 집단을 환대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교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캐나다 지역	한국 순교자 (Peterborough-ON)	성 유대철 (Hamilton-ON)	성 김대건 (London-ON)	성 김 안드레아 (Toronto)
	주일 - 오후 2:00 40 Centre St. Brighton 613) 475-4809	주일 - 오전 11:30 오후 7:00(나이아가라 공소) 6 Heath St. 095) 545-3004	주일 - 오전 11:00 258 Clarke Rd. 226) 663-8688	주일 - 오전 10:00, 오후 12:00(영/학생) 오후 1:30(영/어린이), 3:00, 7:00(청년) 849 Don Mills Rd. 416) 477-4078
한국 순교 성인 (Ottawa)	예수 성심 (Toronto)	성 안나 (Calgary)	성 정하상 (Edmonton-AB)	한국 순교 성인 (Montreal-Quebec)
토 - 오후 5:00 주일 - 오전 10:30 254 Argyle Ave. 613) 237-5528	토 - 오후 5:00 주일 - 오전 9:30(영/학생), 11:00, 오후 5:00(청년) 296 Judson St. 416) 259-5601	수목금 - 오후 7:30, 첫 토요일 성모심미사 - 매월 첫 토요일 11:00 토 - 오후 5:00(젊은이) 주일 - 오전 09:45(어린이), 11:00 910 21 Ave. SE 403) 295-3672	토 - 오후 5:00(청년) 주일 - 오전 10:00(주일학교), 11:00 8350 77 Ave. NW 780) 450-0730	토 - 오후 5:00(청년) 주일 - 오전 10:30 2461 Rue Saint-Jacques 514) 989-1033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피정은, 지친 영혼을 위한 휴식이자 힐링이며,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예수성심 피정집 건립을 도와주십시오.

2017년 4월에 피정집 부지를 매입한 이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에 힘입어 예수성심 피정집 건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하느님 안에서 쉬고 기도할 수 있는 피정집을 지어주십시오. 의자 하나, 벽돌 한 장 봉헌하는 마음을 기다립니다.

- 피정집 부지 위치: 9521 Kehl Canyon Rd., Cherry Valley, CA 92223 (LA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1시간 20분)
- 피정집 건축 계획: 성당, 피정동(1인실 50개, 2인실 30개), 성모 동산, 십자가의 길, 명상길, 캠프장 등

후원금 보내실 곳

PAYABLE TO: JSHRC

Rev. Choi, Dae Je
1451 Dana Street
LA, CA 90007

문의: 최대제 신부 - (213) 248-9707
- ccdjsj@gmail.com

예수성심 피정집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요하네스 클라우자 전 한국지부장

“한국지부 5년간 활동… 하나의 교회임을 느껴”

6월 1일부터 새 지부장에
서울대교구 박기석 신부

“가톨릭교회 역사상 유례없이 평신도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회는 박해와 가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는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 이하 ACN) 활동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ACN 한국지부(이사장 염수정 추기경, 지부장 박기석 신부) 요하네스 클라우자 전 지부장은 ACN의 한국 활동은 누구를 보살피고 도와야할지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자 전 지부장은 2015년 11월 지부를 설립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왔다.

클라우자 전 지부장은 “한국지부 설립 당시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잡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했다”면서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홍순 전 주교형제 한국대사 등 이사진의 조언과 모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ACN 한국지부는 빠른 시간에 자리잡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지부 설립 당시 방한한 ACN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 요하네스 클라우자 전 지부장(오른쪽)과 현 지부장 박기석 신부

총재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 한국 신자들은 신앙이 깊어 한국지부는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 ACN 활동을 위한 큰 기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후 놀랍게도, 한국지부를 통해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ACN 한국지부장으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가톨릭교회는 하나의 교회,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줬다. 클라우자 전 지부장은 “ACN은 기존과 전경, 가난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있고, 이들 교회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돕고 있다”면서 “가톨릭교회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기도를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제 ACN 한국지부는 한국교회와

이끌게 됐다. 지부 설립 준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한국에서 활동해 온 클라우자 전 지부장은 지난 6월 1일자로 지부장직을 서울대교구 박기석 신부에게 넘겼다. 그는 신임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에게 신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클라우자 전 지부장은 “나는 특이한 얼굴을 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몇 마디만하면 신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사제가 한국지부를 이끌어 된 만큼 후원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소통해 ACN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박해받고 가난했던 한국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면서 “힘든 과거를 경험했던 만큼 현재 고통받는 교회를 잘 이해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ACN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신임 지부장 박기석 신부는 “각 본당을 찾아가 신자들에게 ACN의 활동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도하고, 박해받는 교회의 실상을 잘 알고, 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대전 전민동본당
어르신 혼인갱신식서
금강훈 축복장 받은
김종수·정준태 부부

6월 30일 혼인갱신식을 앞두고 함께 한 부부.

“부부 행복의 비결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김종수(베네딕도·90·대전 전민동본당)·정준태(바울다·91) 어르신 부부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각각 17세와 18세 나이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부모님들끼리 정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김 어르신은 처가에 가서야 신부(新婦)를 처음 대면했다. 그렇게 부부가 된 지 올해로 73년째, 슬하에 자녀 4명, 손자 손녀 8명을 뒀다.

6월 30일 대전 전민동본당에서 마련한 ‘어르신 혼인갱신식’에서 금강훈 축복장을 받고 사랑과 신의를 새롭게 다짐한 부부는 “73년의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생애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로(偕老)의 비결로는 “서로가 이해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결혼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성장 환경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의사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해’는 화목한 부부 생활을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부부간 큰 불화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 아들·딸 모두 잘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보람”이라는 김 어르신은 “하느님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어르신은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부인을 챙기며 매 주일 함께 미사에 참례한다.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동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하느님이 부르는 날까지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김 어르신은 “이제 아내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남은 소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

“교회 전시공간,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장으로”

서울대교구 역사관 개관 1주년… 순교자현양위원회·박물관 학예사들 한자리에

“교회 전시공간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체험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6월 1일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 개관으로 명동의 서울대교구 역사관, 절두산순교성지의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등 모두 3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역사관 개관 1주년을 맞아 6월 27일 역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부위원장 원종현 신부는 “교구 내

역사관과 박물관이 짧은 시간에 3곳이나 늘어났지만 부끄럽지 않게 성의를 다한 전시공간이 됐다”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순교자현양위원회와 각 박물관의 학예사들이 ‘침범’이 돼 교리서 없이도

교회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교구는 이 공간들을 통해 역대 교구장들의 역사와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역사, 조선 후기 사상사 안에서의 교회사를 재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 공간은 단순히 고정된 전시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신자들과, 또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보완되는 전시공간이기에 학예사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각 전시공간의 공간을 포함해 정식 학예사는 6명에 불과해 교회 내 학예사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강경윤(유스티나) 학예실장은 “교구 내 박물관이 늘어나 학예사에 관한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한국교회사가 가진 특수·전문성을 함양한 학예사를 양성하는 일은 박물관들이 교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문화체험 학습장으로서 미래를 바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순교자현양위원회 현경선(젬마) 과장은 “학예사가 콘텐츠를 만든다면 위원회에서는 행정업무로 보조하고 있다”며 “역사관·박물관이 활성화 돼 천주교의 콘텐츠가 ‘종교적’이라는 말에 갇히지 않고 사회와 문화 안에 녹아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6월 27일 서울대교구 역사관에서 원종현 신부와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 직원,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학예사들이 서울대교구 역사관 개관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제인사

군종교구

■ 육군

▲전역(대구대교구) 임성호(자운대) ▲사무처장, 관리국장 겸 자운대 이응석(사무처장 겸 관리국장) 이상 7월 31일부 ▲국방부 군종정책과 김상현(국방부 군종정책과 겸 쌍용) ▲전역(서울대교구) 최장민 칠성대(육군) ▲칠성대(육군) 정태화(이기자) ▲충무 김창환(문무대) ▲해외연수 김영태(파룬단) ▲전역(수원교구) 윤성민(충용) ▲과환단 윤원식(성요셉(1군단)) ▲충용 문병현(비승) ▲전역(안동교구) 이동명(성요셉(부사교)) ▲전역(원주교구) 이민호(철벽) ▲전역(수원교구) 이겨레(태국) ▲전

역(광주대교구) 김대건(충무) ▲전역(의정부교구) 이승룡(오투기) ▲전역(서울대교구) 김한국(하상바오로) ▲전역(서울대교구) 강철호(충경) ▲화살(제52사단)성당 건축 겸 성가브리엘 이재혁(전진) ▲비승 임재혁(백골) ▲홍천병원 김용(총장) ▲성요셉(1군단) 한승호(맹호) ▲포천병원 최학선(증평 103위성인) ▲문무대 정비오(백마) ▲성요셉(부사교) 김영송(화랑) ▲쌍용 우석제(한밭) ▲태국 이원근(소성) ▲소성 성주형(2019년 7월 1일 입관) ▲전진 최재관(〃) ▲하상바오로 이성현(〃) ▲백마 박양업(〃) ▲한밭 윤성완(〃) ▲이기자 박혁진(〃) ▲증평103위성인 유윤상(〃) ▲총장 홍민기(〃) ▲백골 우형원(〃) ▲오투기 김여명(〃) ▲화랑 김준영(〃) ▲맹호 여상민(〃) ▲충경 강

선훈(〃) ▲철벽 김세영(〃) 이상 7월 4일부.

■ 해군

▲해사 이응호(해병중앙) ▲해외연수 김혁민(충무대) ▲청룡오리정(김포, 강화) 양정진(청룡오리정(김포)) ▲전역(광주대교구) 이창현(제주해군) ▲해병중앙 신기훈(해사) ▲만포대 김진수(탐라대) ▲탐라대 박상연(신선대) ▲제주해군 김경훈(해병대 요람) ▲동해(해군) 권호섭(청룡오리정) ▲신선대 성영산(동해(해군)) 이상 7월 12일부. ▲청해부대 과병 이지성(해군교육사) 이상 7월 15일부. ▲해병대요람 겸 충무대 안영근(만포대) ▲해군교육사 이슬기(흑룡) 이상 7월 12일부. ▲흑룡 김안식(2019년 7월 1

입관) 이상 7월 8일부.

■ 공군

▲전역(부산교구) 이상울(은성대) ▲성무대 박윤배(예성대) ▲전역(광주대교구) 이건승(성요한) ▲공군중앙 이종영(성무대) ▲용성대 전성주(명성대) ▲광성대 겸 은하수 박근혁(광성대) ▲칠성대(공군) 홍현표(지성대 겸 칠성대(공군)) ▲천성대 김병홍(동성대) ▲동성대 이성민(성가브리엘) ▲명성대 최혁(천마대 겸 공군중앙) ▲성요한 최철(은하수) ▲예성대 안성진(천성대) ▲천마대 정현수(용성대) ▲지성대 박기훈(해성대) ▲은성대 김경욱(2019년 7월 1일 입관) ▲해성대 서정훈(2019년 7월 1일 입관) 이상 7월 7일부.

아시아인 첫 ‘토마스 머튼 상’ 받은 박재찬 신부

“불교-그리스도교 대화에 기여하길 희망”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분도 명상의 집 책임)가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토마스 머튼 상’(Thomas Merton Award)을 수상했다.

국제 토마스 머튼 학회는 머튼에 관한 뛰어난 연구 성과 등을 담은 도서를 선정, 그 저자에게 ‘토마스 머튼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은 격년마다 시상하며 2019년도 수상작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에 나온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신부는 토마스 머튼과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연구,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논문은 지난 4월 『Thomas Merton's Encounter with Buddhism and Beyond : His Interreligious Dialogue, Inter-Monastic Exchanges and Their Legacy』라는 제목의 영문 책자로 발간됐다. 한국어판은 오는 11월 발간 예정이다.

박 신부는 “저의 저서는 아시아 베네딕도회 수도자의 관점에서 집필했기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다”면서 “이 연구가 아시아에서의 불교와 그리스도교간 대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열린 국제 토마스 머튼 학회 총회 중 진행됐다. 국제 토마스 머튼 학회는 현대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인 중 한 명인 토마스 머튼의 삶과 저술 등에 관해 보다 폭넓은 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점이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워킹기도를

서울대교구 봉재종 신부 모친

봉재종 신부(마르코·서울 장안동본당 주임)의 모친 이규원(로사리아) 여사가 6월 27일 오후 3시45분 선종했다. 향년 86세. 고인의 장례미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장안동성당에서 봉행했으며,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됐다.

성 김대건 (Vancouver) 토 - 오후 7:30(청년) 주일 - 오전 8:00, 10:30, 오후 12:30(영) 10222 161 St. 604) 588-5831	성 김효주 아네스 (Vancouver) 토 - 오후 7:00 주일 - 오후 2:00, 3:30(아래01) 월, 수 - 오전 10:00 목 - 오후 7:00 821 Fairfax St Coquitlam, BC V3J 5K7 604) 838-3042			

미국, 캐나다, 중남미의 수천명 교우들이 가톨릭신문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가톨릭신문을 선물하세요

가톨릭신문은 신앙의 정론지며 복음의 전파지로서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양식이고 빛입니다.

또한 주변의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신문을 선물하는 것은 선교의 일환이며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가톨릭신문을 선물하세요.

아래의 양식에 기입하신 후 우편, 팩스,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The Catholic Times
15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팩스: 323. 735. 2496
이메일: ctimesusa@gmail.com
문의: 323. 735. 0505

신청인 본인 기입란

본인이 아닌 다른 분에게 선물할 경우
선물받는 사람의 기입란

선교지로 보낼 것을 원할시 기입란

도네이션만 할 경우 기입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기입란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가톨릭신문
THE CATHOLIC TIMES

구 독 신 청 서

성명, 연락처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본인 신청 및 구독료 내실 분 (부)	성명	영문	한글	세레명	
	주소			본당	
				전화	

선물, 보내기 후원만 하실 분도 위 구독료 내실분에 본인의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이메일	
-----	--

선물 보낼 곳 (부)	성명	영문	한글	세레명	
	주소			본당	
				전화	

보내기 후원할 곳 (부)	한 부의 가톨릭 신문은 한 명의 선교사입니다. ※ 보내실 곳에 체크 해 주십시오.		
	☐ 중남미	☐ 교도소	☐ 복지시설
	* Check Payable To: The Catholic News		

특별후원
(Donation)

\$ _____

※ 신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Cash), 또는
체크(Check)로 성의껏 후원해 주십시오.

결제 방법

- ☐ Check (No.)
- ☐ Cash (\$))
- ☐ 우편으로 Check 송부

1부
구독료

※ Check를 보내실 때
■ 1년 : USD \$130.00

■ Check Payable To :
The Catholic Times

Tel: 323-735-0505

크레딧 카드 결제

1년 \$130

비자, 마스터 카드로 결제하시면 신문사에 도움이 됩니다.

☐ VISA ☐ MASTER ☐ DISCOVER ☐ AMEX

- 카드 성명(Name on Card) _____
- 카드 번호(Card No.) _____
- 유효기간(Month / Year) _____
- 카드 뒷면 마지막 세자리 번호(CVV No.) _____

신청인 서명 _____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신청 합계

본인 ()부 + 선물 ()부 + 후원 ()부 + 특별후원 \$() | 총 ()부 + \$()

OFFICE USE ONLY